

# 馬王堆醫書에 나타난 病因病機 및 病證에 關한 研究

I. 緒論 .....	64
II. 本論 및 考察 .....	65
1. 馬王堆醫書와 經脈病機 .....	65
2. 馬王堆醫書와 古代臨床醫學 .....	71
III. 結論 .....	88
IV. 參考文獻 .....	89

KYOBO  
교보문고

# 馬王堆醫書에 나타난 病因病機 및 病證에 관한 研究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醫史學教室 張溶薰, 金谷辰

## 1. 緒論

1972년부터 1974年初까지 長沙市 東郊에 위치한 馬王堆 3기의 西漢墓에서 진귀한 문물과 희귀한 文獻資料가 출토되었다. 특히 馬王堆 三號 西漢墓에서 출토된 帛書와 竹木簡에는 적지 않은 古醫書 14種이 있었는데 이들 古醫書는 모두 후세에 이미 失傳된 醫書로 『漢書藝文志』에 조차 기록되지 않은 것이었다<sup>1)</sup>.

과거에는 『黃帝內經』(以下 內經이라함.)을 현존하는 最古의 韓醫書로 여겼으나 馬王堆醫書가 출토된 이후에는 이 결론이 성립하기 어려워졌으니 馬王堆醫書 14種과 『內經』을 서로 비교해 보면 전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일부분의 馬王堆醫書가 쓰여진 시기는 『內經』보다 이른 시기로 『內經』이 戰國에서 秦漢時期에 쓰였다고 한다면 이 부분의 馬王堆醫書는 戰國以前에 쓰여졌을 가능성이 있으며, 春秋時代까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馬王堆醫書와 『內經』은 대체적으로 同時代이거나 前後의 차이가 많지는 않기 때문이다<sup>2)</sup>.

馬王堆醫書는 『足臂十一脈灸經』, 『陰陽十一脈灸經』 甲本, 『脈法』, 『陰陽脈死候』, 『五十二病方』, 『却穀食氣』, 『陰陽十一脈灸經』 乙本, 『導引圖』, 『養生方』, 『雜療方』, 『胎產書』와 같은 帛書와 『十問』, 『合陰陽』, 『天下至道談』, 『雜禁方』과 같은 竹木簡이 있는데 이 중 『陰陽十一脈灸經』 甲本과 乙本은 기본적으로 文字가 같기 때문에 같은 종류로 보며, 그 내용은 經脈, 灸治療와 內科, 外科, 婦科, 兒科, 五官科를 포함한 臨床各科, 方藥, 氣功導引 및 養生保健에 걸쳐 매우 광범위하여 西漢以前까지의 醫藥學水準을 짐작케 하고 있다<sup>3)</sup>.

그 중 『足臂十一脈灸經』, 『陰陽十一脈灸經』, 『脈法』, 『陰陽脈死候』는 經脈과 診斷學에, 『五十二病方』, 『胎產書』는 臨床各科에, 『却穀食氣』, 『導引圖』는 氣功導引에, 『養生方』, 『十問』은 攝生保健에, 『十問』, 『合陰陽』, 『天下至道談』는 房室生活에, 『雜禁方』은 祝由療法과 관계가 깊다.

이처럼 馬王堆醫書는 西漢以前의 醫學을 研究하는데 그 意義가 크다 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研

1)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醫史學教室 : 中國醫學史, 1997, p. 88, 92.  
周一謀 外 : 馬王堆醫學文化, p. 1.  
2)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醫史學教室 : 中國醫學史,

1997, pp. 92~93.

3)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醫史學教室 : 中國醫學史, 1997, p. 92.  
周一謀 外 : 馬王堆醫學文化, p. 12.

究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著者は 先秦時代 醫學의 病因, 病機學에 대한 研究의 一環으로 馬王堆醫書에 나타난 病因, 病機學說 및 病證을 綜合, 整理하고, 『內經』과 比較, 檢討하였던 바 若干의 知見을 얻었기에 報告하는 바이다.

## II. 本論 및 考察

馬王堆醫書의 原文은 모두 釋文으로 구성하였고, 原文의 異體字, 假借字는 釋文다음에 ( )로, 原文의 錯字는 < >로 표시하였으며, 原文에서 이미 없어진 廢字는 釋文에서 ○로 대체하였고, 原文의 脫字는 다음에 【 】로 표시하였다. 또한 馬王堆醫書의 내용이 매우 손상되어 있어 辨識하지 못하거나 補出할 방법이 없는 殘缺字는 釋文中에 □로 표시하였고, 殘缺字의 數를 確定하지 못하는 것은 ⊗로 표시하였다<sup>4)</sup>.

### 1. 馬王堆醫書와 經脈病機

#### 1) 足臂十一脈灸經과 各脈의 主病候

『足臂十一脈灸經』은 足泰陽脈, 足少陽脈, 足陽明脈, 足少陰脈, 足泰陰脈, 足厥陰脈의 足部 六條脈과 臂厥陰脈을 제외한 臂泰陰脈, 臂少陰脈, 臂泰陽脈, 臂少陽脈, 臂陽明脈의 臂部 五條脈의 循行部位와 所主病候 및 灸法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十一脈의 循行方向은 전부 向心性이며, 治療

는 전부 灸法으로 어떤 脈을 灸한다고 하면서도 穴位에 대한 名稱이나 鍼治에 대한 기재는 나타나 있지 않고, 病候의 묘사는 간단하면서 원시적이라 할 수 있다<sup>5)</sup>.

足太陽脈의 病證으로는 足小指廢, 臑痛, 郄攣, 臑痛, 產痔, 腰痛, 挾脊痛, 項痛, 手痛, 顏寒, 產聾, 目痛, 眦衄, 癩疾 등이, 足少陽脈의 病證으로는 足小指次指廢, 脛外廉痛, 脛寒, 膝外廉痛, 股外廉痛, 脾外廉痛, 脇痛, 產馬, 缺盆痛, 癢, 聾, 枕痛, 耳前痛, 目外眦痛, 脇外腫 등이, 足陽明脈의 病證으로는 足中指廢, 脛痛, 膝中腫, 腹腫, 乳內廉痛, 額痛, 眦衄, 數熱汗出, 胫瘦, 顏寒 등이, 足少陰脈의 病證으로는 足熱, 臑內痛, 腹街, 脊內廉痛, 肝病, 心痛, 煩心, 牧牧嗜臥以咳 등이, 足太陰脈의 病證으로는 足大指廢, 脛內廉痛, 股內痛, 腹痛, 腹脹, 不嗜食, 善噦, 善肘 등이, 足厥陰脈의 病證으로는 胫瘦, 多溺, 嗜飲, 足跗腫, 疾痺 등이, 臂太陰脈의 病證으로는 心痛, 心煩而噦 등이, 臂少陰脈의 病證으로는 脇痛이, 臂太陽脈의 病證으로는 臂外廉痛이, 臂少陽脈의 病證으로는 產聾이, 臂陽明脈의 病證으로는 齒痛이 記載되어 있다.

#### 2) 陰陽十一脈灸經과 是動病, 所生病

是動病과 所生病은 經絡學說에 있어 오래도록 未決된 難題였다. 是動病과 所生病에 대한 최초의 언급은 『靈樞經脈』篇에서 “是動則病 …… 是 …… 所生病者”<sup>6)</sup>라고 하여 十二經脈에 대한 病機를 서술하면서 各經脈의 是動病과 所生病에 대하여 설명한 이래 『難經·二十二難』에서 “經言是動者, 氣也; 所生病者, 血也. 邪在氣, 氣爲是動; 邪在血, 血爲所生病. 氣主响之, 血主濡之. 氣留而不行

4) 周一謀 主編：馬王堆醫書考注(凡例), 榮群文化事業公司, 1989, p. 1.

5) 周一謀 主編：馬王堆醫書考注, 榮群文化事業公司, 1989, p. 1.

6) 洪元植 編：精校黃帝內經,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 229.

者, 爲氣先病也; 血壅而不濡者, 爲血後病也. 故先爲是動, 後所生病也.”<sup>7)</sup>라고 하여 是動病과 所生病을 氣血의 문제로 인식한 반면, 明代 張景岳은 “觀此以是動爲氣, 所生爲血, 先病爲氣, 後病爲血, 若乎近理. 然細察本篇之義, 凡在五臟, 則各言臟所生病; 凡在六腑, 則或言氣或言血, 或脈或筋, 或骨或津液, 其所生病本各其所主, 非以氣血二字統言十二經者也. 難經之言, 似非經旨.”라고 하여 『難經』에서 是動病과 所生病을 氣血로 구분하여 설명한 것은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였다.

『難經』의 氣血의 각도에서 是動病과 所生病을 설명하는 것에 찬동하지 않은 醫家들중에는 是動病을 經絡病, 所生病을 臟腑病으로 인식하기도 하고, 是動病을 外因에 의해 야기된 病, 所生病을 內因에 의해 야기된 病으로 인식하기도 하며, 是動病을 證候로, 所生病을 病名으로 認識하기도 하였다<sup>8)</sup>.

이처럼 是動病과 所生病에 대한 진정한 含義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던 바 馬王堆醫書가 출토되고서야 그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靈樞經脈』篇中の “是動則病 …… 是 …… 所生病者”의 根源은 『陰陽十一脈灸經』의 “是動則病 …… 是 …… 脈主治, 所產病者”라는 句文中서 是動病과 所生病을 分別하여 논하고 있음을 찾아 볼 수 있다. 『陰陽十一脈灸經』에서 언급하고 있는 是動病은 經脈의 脈動失常으로 인한 該當經脈에서 나타나는 病證을 말하고 있고, 所生病은 經脈의 脈搏動은 正常이나 該當經脈에서 나타나는 病證을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9)</sup>.

『陰陽十一脈灸經』과 『靈樞經脈』에서 언급

한 是動病과 所生病을 서로 비교해 보면 『陰陽十一脈灸經』의 “【鉅陽脈(脈) …… 是動則病 : 瀆(腫), 頭痛, □□□□脊痛, 要(腰)以(似)折, 脾(髀)不可以運, 臑如結】. 臑如【裂, 此】爲蹠蹶(厥), 是鉅陽脈(脈)【主治. 其所產病 : 頭痛, 耳聾, 項痛, 耳疆】. 瘡, 北(背)痛, 要(腰)痛, 尻痛, 肉寺(痔), 肉谷(郛)痛, 【足小指痺, 爲十】二病.”<sup>10)</sup>과 『靈樞經脈』의 “膀胱足太陽之脈 …… 是動則病 衝頭痛, 目似脫, 項如拔, 脊痛, 腰似折, 髀不可以曲, 臑如結, 蹠如裂, 是爲蹠蹶. 是主筋所生病者, 痔, 瘡, 狂, 癲疾, 頭顛項痛, 目黃, 淚出, 眦衄, 項背, 腰, 尻, 臑端, 脚皆痛, 小趾不用.”<sup>11)</sup>, 『陰陽十一脈灸經』의 “【少】陽脈(脈) …… 是動則病 : 【心與脇痛, 不】可以反稷(側), 甚則無膏, 足外反, 此爲陽【蹠蹶(厥)】, 是少陽【脈(脈)主】治. 其所產病 : □□□【頭頸】痛, 脇痛, 瘡, 汗出, 節盡痛, 脾(髀)【外】廉【痛】. 【□痛】. 魚股痛, 【膝外廉】痛, 振寒, 【足中指】蹠(痺), 爲十二病.”<sup>12)</sup>과 『靈樞經脈』의 “膽足少陽之脈 …… 是動則病 口苦, 善太息, 心脇痛, 不能轉側, 甚則面微有塵, 體無膏澤, 足外反熱, 是爲陽蹶. 是主骨所生病者, 頭痛, 頷痛, 目銳眦痛, 缺盆中腫痛, 腋下腫, 馬刀俠瘦, 汗出振寒, 瘡, 胸, 脇, 肋, 髀, 膝外至脛, 絕骨, 外踝前及諸節皆痛, 小趾次趾不用.”<sup>13)</sup>, 『陰陽十一脈灸經』의 “陽明脈(脈) …… 是動則病 : 洒洒病寒, 喜龍, 婁(數)吹(欠), 顏【黑, 病種(腫), 病至則惡人與火, 聞】木音則靈(惕)然驚, 心腸(惕), 欲獨閉戶牖而處, 【病甚】則欲【登高而歌, 弃】衣

10) 周一謀 主編 : 馬王堆醫書考注, 樂群文化事業公司, 1989, p. 23.  
 11) 洪元植 編 : 精校黃帝內經,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 231.  
 12) 周一謀 主編 : 馬王堆醫書考注, 樂群文化事業公司, 1989, p. 26.  
 13) 洪元植 編 : 精校黃帝內經,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 232.

7) 凌輝星 主編 : 難經校注, 서울, 一中社, 1992, p. 44.  
 8) 周一謀 外 : 馬王堆醫學文化, pp. 44~45.  
 9) 周一謀 外 : 馬王堆醫學文化, p. 45, 47.

【而走，此爲】肝厥(厥)，是陽明脈(脈)主治。其所產病：顏痛，鼻月九(鼻)，頷(頷)【頸痛，乳痛】，心與臑痛，腹外種(腫)，陽(腸)痛，膝跳，付(跗)□□，【爲】十【病】。<sup>14)</sup>과 『靈樞經脈』의 “胃足陽明之脈……是動則病洒洒振寒，善呻，數欠，顏黑，病至則惡人與火，聞木聲則惕然而驚，心欲動，獨閉戶塞牖而處，甚則欲上高而歌，棄衣而走，賁響腹脹，是爲肝厥。是主血所生病者，狂瘡溫淫，汗出，鼻惡，口喎，唇胗，頸腫，喉痺，大腹水腫，膝臑腫痛，循膺乳，氣街，股，伏兔，肝外廉，足跗上皆痛，中趾不用，氣盛則身以前皆熱，其有餘於胃，則消穀善飢，溺色黃，氣不足則身以前皆寒慄，胃中寒則脹滿<sup>15)</sup>，『陰陽十一脈灸經』의 “大(太)陰脈(脈)……是動則病：上【當】走心，使復(腹)張(脹)，善噫，食欲歐(嘔)，得後與氣則快然衰，是鉅陰脈(脈)主治。其所【產病】：□□，心煩，死；心痛與復(腹)張(脹)，死；不能食，不能臥，強吹(欠)，三者同則死；唐(滂)泄，死；【水與】閉同則死，爲十病。<sup>16)</sup>과 『靈樞經脈』의 “脾足太陰之脈……是動則病舌本強，食則嘔，胃脘痛，腹脹，善噫，得後與氣，則快然如衰，身體皆重。是主脾所生病者，舌本痛，體不能動搖，食不下，煩心，心下急痛，溏瘕泄，水閉，黃疸，不能臥，強立，股膝內腫厥，足大趾不用。”<sup>17)</sup> 『陰陽十一脈灸經』의 “厥陰脈(脈)……是動則【病：丈】夫隕(癩)【山(疝)，婦人則少腹種(腫)，要(腰)痛】不可以印(仰)，甚則噎乾，面疵，是厥陰脈(脈)主治。【其】所產病：熱中，【降

勿治醫受(也)。有陽脈(脈)與之【俱】病，可治醫受(也)。<sup>18)</sup>과 『靈樞經脈』의 “肝足厥陰之脈……是動則病腰痛不可以俛仰，丈夫瘕疝，婦人少腹腫，甚則噎乾，面塵，脫色。是肝所生病者，胸滿，嘔逆，飧泄，狐疝，遺溺，閉癰。<sup>19)</sup> 『陰陽十一脈灸經』의 “少陰脈(脈)……【是動則病】：噎(噎)噎(噎)如喘，坐而起則目瞶(目芒)如母見，心如懸(懸)，病飢，氣【不足】，善怒，心腸(腸)，恐【人將捕之】，不欲食，面黧若炭也(她)色，咳則有血，此爲骨厥(厥)，是少【陰】脈(脈)主【治】。其【所產病】：□□□□□舌柝(坼)，噎乾，上氣，噎(噎)，噎中痛，痺，蒼(嗜)臥，咳，音(瘖)，爲十病。<sup>20)</sup>과 『靈樞經脈』의 “腎足少陰之脈……是動則病饑不欲食，面如漆紫，咳唾則有血，喝喝而喘，坐而欲起，目眈眈如無所見，心如懸若饑狀。氣不足則善恐，心惕惕如人將捕之，是爲骨厥。是主腎所生病者，口熱，舌乾，咽腫，上氣，噎乾及痛，煩心，心痛，黃疸，腸澼，脊股內後廉痛，痿厥，嗜臥，足下熱而痛。<sup>21)</sup> 『陰陽十一脈灸經』의 “腎鉅陰脈(脈)……是動則病：心滂滂如痛，缺盆痛，甚【則】交兩手而戰，此爲臂厥(厥)，【是臂鉅陰脈(脈)主】治。其所產病：月凶(胸)痛，噎(腕)痛，【心痛】，四末痛，段(瘕)，爲五病。<sup>22)</sup>과 『靈樞經脈』의 “肺手太陰之脈……是動則病肺脹滿，膨滿而喘咳，缺盆中痛，甚則交兩手而脅，此爲臂厥。是主肺所生病者，咳，上氣，喘，渴，煩心，胸滿，臑臂內前廉痛厥，掌中熱，氣盛有

- 14) 周一謀 主編：馬王堆醫學考注，樂群文化事業公司，1989, p. 28.  
 15) 洪元植 編：精校黃帝內經，서울，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1981, pp. 229~230.  
 16) 周一謀 主編：馬王堆醫學考注，樂群文化事業公司，1989, p. 33.  
 17) 洪元植 編：精校黃帝內經，서울，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1981, p. 230.

- 18) 周一謀 主編：馬王堆醫學考注，樂群文化事業公司，1989, p. 35.  
 19) 洪元植 編：精校黃帝內經，서울，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1981, p. 233.  
 20) 周一謀 主編：馬王堆醫學考注，樂群文化事業公司，1989, pp. 36~37.  
 21) 洪元植 編：精校黃帝內經，서울，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1981, p. 231.  
 22) 周一謀 主編：馬王堆醫學考注，樂群文化事業公司，1989, p. 39.

餘, 則肩背痛, 風寒汗出中風, 小便數而欠, 氣虛則肩背痛, 寒, 少氣不足以息, 溺色變。”<sup>23)</sup>, 『陰陽十一脈灸經』의 “臂少陰脈(脈) …… 【是動則病 : 心】痛, 益(噎)渴欲飲, 此爲臂蹶(厥), 是臂少陰脈(脈)主治. 其所產【病 : 脇】痛, 爲【一病】.”<sup>24)</sup>과 『靈樞經脈』의 “心手少陰之脈 …… 是動則病噎乾, 心痛, 渴而欲飲, 是爲臂蹶. 是主心所生病者, 目黃, 脇痛, 臑臂內後廉痛厥, 掌中熱痛.”<sup>25)</sup>, 『陰陽十一脈灸經』의 “肩脈(脈) …… 是【動則病 : 噎痛, 頷種(腫)】, 不可以顧, 肩以(似)脫, 臑以(似)折, 是肩脈(脈)主治. 【其所產病】 : 頷(頷)【痛, 喉痺, 臂痛, 肘】痛, 爲四病.”<sup>26)</sup>과 『靈樞經脈』의 “小腸手太陽之脈 …… 是動則病噎痛, 頷腫, 不可以顧, 肩似拔, 臑似折. 是主液所生病者, 耳聾, 目黃, 頰腫, 頸, 頷, 肩, 臑, 肘, 臂外後廉痛.”<sup>27)</sup>, 『陰陽十一脈灸經』의 “耳脈(脈) …… 是動則病 : 耳聾, 輝輝月享月享, 噎種(腫), 是耳脈(脈)主治. 其所產病 : 目外漬(眦)痛, 頰【痛】, 耳聾, 爲三病.”<sup>28)</sup>과 『靈樞經脈』의 “三焦手少陽之脈 …… 是動則病耳聾渾渾焯, 噎腫, 喉痺. 是主氣所生病者, 汗出, 目銳眦痛, 頰痛, 耳後, 肩, 臑, 肘, 臂外皆痛, 小指次指不用.”<sup>29)</sup>, 『陰陽十一脈灸經』의 “齒脈(脈) …… 是【動】則病 : 齒痛, 舐(頤)種(腫), 是齒脈(脈)主治. 其所產病 : 齒痛, 舐(頤)種(腫), 目黃,

口乾, 臑痛, 爲五【病】.”<sup>30)</sup>과 『靈樞經脈』의 “大腸手陽明之脈 …… 是動則病齒痛, 頸腫. 是主津液所生病者, 目黃, 口乾, 齟齬, 喉痺, 肩前臑痛, 大指次指痛不用, 氣有餘則當脈所過者熱腫, 虛則寒慄不復.”<sup>31)</sup> 등의 是動病과 所生病이 서로 흡사함을 알 수 있다.

『陰陽十一脈灸經』과 『靈樞經脈』에 언급된 是動病과 所生病을 서로 비교하면 다음 <表 1> 및 <表 2>와 같다.

23) 洪元植 編 : 精校黃帝內經,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 229.

24) 周一謀 主編 : 馬王堆醫學考注, 樂群文化事業公司, 1989, p. 40.

25) 洪元植 編 : 精校黃帝內經,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 230.

26) 周一謀 主編 : 馬王堆醫學考注, 樂群文化事業公司, 1989, p. 30.

27) 洪元植 編 : 精校黃帝內經,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 231.

28) 周一謀 主編 : 馬王堆醫學考注, 樂群文化事業公司, 1989, p. 31.

29) 洪元植 編 : 精校黃帝內經,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 232.

<表 1> 陰陽十一脈灸經과 靈樞의 是動病 比較

30) 周一謀 主編 : 馬王堆醫學考注, 樂群文化事業公司, 1989, pp. 31~32.

31) 洪元植 編 : 精校黃帝內經,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 229.

陰陽十一脈灸經		靈樞經脈篇		
差異症	共通症	差異症		
鉅陽脈	瀉(腫)	頭痛,脊痛,腰似折,脾不可以曲,膈如結,踰如裂	目似脫,項如拔	膀胱足太陽脈
少陽脈	足外反	心脇痛,不能轉側,甚則體無膏澤	口苦,善太息,甚則面微塵,足外反熱	膽足少陽脈
陽明脈	病腫	洒洒振寒,善伸數欠,顏黑,病至則惡人與火,聞木聲則惕然而驚,心欲動,獨閉戶塞牖而處,甚則欲上高而歌,棄衣而走	實響腹脹	胃足陽明脈
肩脈		喑痛,頰腫,不可以顧,肩似拔,臑似折		小腸手太陽脈
耳脈		耳聾,渾渾,喑,喑腫	喉痺	三焦手少陽脈
齒脈		齒痛,頰腫		大腸手陽明脈
太陰脈	上當走心	食則嘔,腹脹,善噫,得後與氣則快然如衰	舌本強,胃脘痛,身體皆重	脾足太陰脈
厥陰脈		腰痛不可以俛仰,丈夫疝疝,婦人少腹腫,甚則喑乾,面塵	脫色	肝足厥陰脈
少陰脈	氣不足善怒	喝喝而喘,坐而起,目眈眈所見,心如懸若飢狀,心惕如人將捕之,不欲食,面如漆紫,咳唾有血	氣不足善恐	腎足少陰脈
臂鉅陰脈	心滂滂如痛	缺盆痛,甚則交兩手而脅	肺脹滿,喘咳	肺手太陰脈
臂少陰脈		心痛,渴而欲飲	喑乾	心手少陰脈
			手心熱,臂肘舉急,腋腫,甚則胸脇支滿,心中愴愴大動,面赤,目黃,喜笑不休	心主手厥陰心包絡脈

陰陽十一脈灸經		靈樞經脈篇		
差異症	共通症	差異症		
鉅陽脈	耳聾耳強	頭顛項痛,背痛,腰痛,尻痛,脚痛,痔,瘡,小趾不用	狂,癲疾,目黃,淚出,眦紅,鬮喘痛	膀胱足太陽脈
少陽脈	頭痛魚股痛	頭痛,脇痛,瘡,汗出,振寒,節痛,脾膝外廉痛,小趾次趾不用	頰痛,目銳眦痛,缺盆中腫痛,腋下腫,馬刀俠瘦,胸痛,絕骨,外踝前及諸節皆痛	膽足少陽脈
陽明脈	頰痛頰痛心與臑腫腸痛	頰痛	狂瘧溫淫,汗出,口鳴,唇腫,頭腫,喉痺,大腹水腫,膝腫痛,膈乳氣街股伏兔肝外廉足跗上皆痛,中趾不用,身以前皆熱,消穀善飢,溺色黃,身以前皆寒,脈脹滿	胃足陽明脈
肩脈	喉痺	頰痛,臂痛,肘痛	耳聾,目黃,頰腫頸肩膈痛	小腸手太陽脈
耳脈	耳聾	目銳眦痛,頰痛	汗出,耳後肩臑肘臂外痛,小指次指不用	三焦手少陽脈
齒脈	齒痛頰腫	目黃,口乾,膈痛	眦紅,喉痺,大指次指不用,熱腫,寒慄不復	大腸手陽明脈
太陰脈	心痛腹脹不能食	煩心,漉泄,水閉,不能臥,強立	舌本痛,體不能動搖,食不下,心下急痛,黃疸,股膝內腫,足大趾不用	脾足太陰脈
厥陰脈	熱中煩	狐疝,閉癢	胸滿,嘔逆,飧泄,遺溺	肝足厥陰脈
少陰脈	舌疝噎痺咳,瘖	喑乾,喑痛,上氣,嗜臥	口熱,舌乾,咽腫,煩心,心痛,黃疸,腸澼,脊股內後廉痛,痿厥,足下熱而痛	腎足少陰脈
臂鉅陰脈	胸痛腕痛心痛瘕四末痛		咳,上氣,喘,渴,煩心,胸滿,膈臂內前廉痛,掌中熱,肩背痛,風寒汗出中風,小便數而欠寒,少氣不足以息,溺色變	肺手太陰脈
臂少陰脈	脇痛		目黃,膈臂內後廉痛,掌中熱痛	心手少陰脈
			煩心,心痛,掌中熱	心主手厥陰心包絡脈

〈表 2〉陰陽十一脈灸經과 靈樞의 所生病 比較

### 3) 陰陽脈死候와 五死症

『陰陽脈死候』는 三陽脈과 三陰脈의 死候原則

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환자의 瀕死前 종종 나타나는 임상표현에 근거하여 氣, 血, 骨, 肉, 筋의 이론을 사용하였다. 『陰陽脈死候』에서는 “凡三陽, 天氣醫受(也), 其病唯折骨列(裂)膚一死. 凡三陰, 地氣醫受(也), 死脈(脈)醫受(也), □病而亂, 則【不】過十日而死. 三陰(腐)臧(臟)煉(爛)腸而主殺<sup>32)</sup>”이라고 하였으니 三陽은 太陽, 少陽, 陽明을 말하고, 三陰은 太陰, 少陰, 厥陰을 말한다. 三陽脈은 體內로 진입하지 않고 病證 또한 內臟까지 미치지 않으며 嚴重한 開放性骨折로 “折骨裂膚”하였을 때에만 死亡에 이르게 한다 하였으니 대체적으로 三陽脈의 疾病은 死症이 없음을 설명하고 있고, 三陰脈은 體內的 內側에 分布하고 體內에 진입하여 心, 胃, 腎 등과 같은 內臟과 상호 연결하므로 心煩, 心痛, 肝痛, 胸痛, 腕痛, 腹痛, 腹脹, 不嗜食 등과 같은 兪중한 內臟疾病이 나타나게 되며, “凡三陰, 地氣醫受(也), 死脈(脈)醫受(也).”라 한 것은 足三陰脈이 主하는 病이 嚴重함을 말하고 있다.

同書에 “□□五死 : 唇反人盈, 則肉【先死】; □□□□, 【則】骨先死; 面黑, 目環(環)視(環), 則氣先死; 汗出如絲, 溥而不流, 則血先死; 舌陷(陷)囊(卵)卷, 【則筋】先死. 五者扁(徧)有, 則不活(活)矣.”<sup>33)</sup>라고 하여 三陰脈, 三陽脈의 이론과는 다른 氣, 血, 骨, 筋, 肉의 이론을 사용하여 五死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니 “唇反人盈”은 人中이 脹滿하고 입술이 變形한 것을 말하는데 『靈樞經脈』에서는 이를 보충하여 “足太陰氣絕者, 則脈不榮肌肉. 唇舌者, 肌肉之本也, 脈不榮, 則肌肉軟; 肌肉軟, 則舌萎人中滿, 人中滿, 則唇反, 唇反者, 肉先死.”<sup>34)</sup>라고 하였으니 이는 帛書의 原文을 기초로 하

여 唇과 肉의 生理系統을 진일보하여 闡述하였음을 알 수 있고, “面黑, 目環視(環), 則氣先死”에서 “目環視(環)”는 눈동자가 僵直되거나 斜視하면서 눈동자를 운동시키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데 『素問診要經終論』에서는 이를 少陽脈의 臨終症候로 보아 “少陽終者, 耳聾, 百節皆縱, 目環絕系, 絕系一日半死.”<sup>35)</sup>라고 하였으며, “面黑”에 대해 『靈樞經脈』에서는 “血先死”의 症候로 歸納하면서 “目環視(環)”는 버리고 “氣先死”를 전부 其他症候로 바꾸어 “手太陰氣絕, 則皮毛焦. 太陰者, 行氣溫於皮毛者也. 故氣不榮, 則皮毛焦, 皮毛焦, 則津液去皮節, 津液去皮節者, 則爪枯毛折, 毛折者, 則毛先死.”<sup>36)</sup>라고 하였다. “汗出如絲, 溥而不流”란 汗出粘稠하여 손가락으로 이를 집으면 실처럼 되며 皮膚에 부착하여 흐르지 않은 것으로 油汗, 絕汗이라고도 하는 것이다. “汗出如絲, 溥而不流, 則血先死”에 대해 『內經』에서는 이를 六陽氣가 絶한 것으로 歸入하였으며, “血先死”와 “氣先死”中的 “面黑”을 “手少陰氣絶”로 歸納하였으니 『靈樞經脈』에 “六陽氣絶, 則陰與陽相離, 離則腠理發泄, 絶汗乃出, 故旦占夕死, 夕占旦死”<sup>37)</sup>와 “手少陰氣絶, 則脈不通, 脈不通, 則血不流, 血不流, 則髮色不澤, 故其面黑如漆柴者, 血先死.”<sup>38)</sup>라고 하였다. “舌陷卵卷”은 舌體가 卷屈하고 辜丸이 上縮한 것이며, “舌陷卵卷, 則筋先死”를 『靈樞經脈』에서는 이를 보충하여 “足厥陰氣絶, 則筋絶. 厥陰者, 肝脈也, 肝者, 筋之

32) 周一謀 主編 : 馬王堆醫學考注, 榮群文化事業公司, 1989, p. 46.

33) 周一謀 主編 : 馬王堆醫學考注, 榮群文化事業公司, 1989, pp. 46~47.

34) 洪元植 編 : 精校黃帝內經,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 233.

35) 洪元植 編 : 精校黃帝內經,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 35.

36) 洪元植 編 : 精校黃帝內經,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 233.

37) 洪元植 編 : 精校黃帝內經,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 233.

38) 洪元植 編 : 精校黃帝內經,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 233.

合也, 筋者, 聚於陰氣, 而脈絡於舌本也. 故脈弗榮, 則筋急, 筋急則引舌與卵, 故唇青舌卷卵縮, 則筋先死.”<sup>39)</sup>라고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듯이 『內經』은 馬王堆帛書를 기초로 진일보하여 闡述되었음을 알 수 있다.

## 2. 馬王堆醫書와 古代臨床醫學

### 1) 馬王堆醫書와 內科學

#### (1) 癲癇

癲과 癇은 不同한 疾病으로 이 두 가지 疾病에 대해 帛書에서는 明確하게 구분하였다.

##### ① 癲狂病

『五十二病方』에서는 “顛(癲)疾 : 先(尙)白鷄, 犬矢. 發, 卽以刀(剗)其頭, 從顛倒項, 卽以犬矢【濕】之, 而中(剗)鷄□, 冒其所以犬矢濕者, 三日而已. 已, 卽孰(熟)所冒鷄而食之, □已.”<sup>40)</sup>, “癲(癲)疾者, 取犬尾及禾在圈垣上【者】, 段治, 湮汲以飲之.”<sup>41)</sup>라고 하여 2條의 癲病治療方을 기재하고 있으나 狂症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事實상 上古時代에는 흔히 癲狂을 연속적으로 붙여 말하였으며, 이들은 이미 구별되었으면서도 서로 연관되어 있다. 癲狂症은 精神錯亂의 疾病이나 癲症은 痰氣鬱結하거나 혹은 心脾兩虛한 所致로 인하여 情志淡漠, 沈默痴呆, 言語錯亂, 不知飢飽, 甚則僵仆直視 등과 같은 抑制狀態가 나타나는 것으로 주로 虛證에 속한다 할 수 있으며, 狂症은 陽

氣過亢, 心神外越의 所致로 인하여 喧搖不寧, 衣被不斂, 打人罵人, 歌笑不休, 多怒, 甚則逾垣上屋 등과 같은 興奮狀態가 나타나는 것으로 주로 實證에 속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sup>42)</sup>. 癲狂症은 陰證과 陽證으로 구분할 수 있으니 『難經二十難』에 “重陽者狂, 重陰者癲”<sup>43)</sup>이라고 하여 陰盛하면 癲, 陽盛하면 狂이라고 하였다. 癲狂二症은 確연히 구분할 수 없으며 때로는 相互轉化하니 癲病이 오래되면 痰鬱化火하여 狂症이 나타날 수 있으며, 狂症이 오래되면 鬱火가 점차 宣泄하여 痰氣가 留滯하므로 癲症이 나타날 수 있으니 癲狂을 함께 보는 것이 마땅하다<sup>44)</sup>.

##### ② 癇病

『五十二病方』에는 “人病馬不間(癇), 人病【□】不間(癇), 人病羊不間(癇), 人病蛇不間(癇)”<sup>45)</sup>과 같은 4종의 癇症과 “【人】病馬不間(癇)者 : 以浴病者. 病者女【子】□男子以即以女子初有布燻”<sup>46)</sup>, “以飲以布以酒中飲”<sup>47)</sup>라고 하여 “人病馬不間(癇)”에 대한 治方만이 수록되어 있다.

癇症은 속칭 “羊癇風”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일종의 發作性 神志異常의 질병이다. 症候는 突然仆倒, 不省人事, 口吐白沫, 兩目上視, 四肢抽搐하거나 혹은 돼지나 양과 같은 괴상한 소리를 지르고, 잠시후 깨어나며, 깨어난 뒤에는 疲乏을 느끼는 외에는 정상인과 똑같으며, 흔히 부정기적으로 반복하여 발작한다<sup>48)</sup>. 본 병은 大驚大恐으로 인하여

39) 洪元植 編 : 精校黃帝內經,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 233.

40) 周一謀 主編 : 馬王堆醫學考注, 樂群文化事業公司, 1989, p. 105.

41) 周一謀 主編 : 馬王堆醫學考注, 樂群文化事業公司, 1989, p. 106.

42) 周一謀 外 : 馬王堆醫學文化, p. 59.

43) 凌輝星 主編 : 難經校注, 서울, 一中社, 1992, p. 42.

44) 周一謀 外 : 馬王堆醫學文化, p. 59.

45) 周一謀 主編 : 馬王堆醫學考注, 樂群文化事業公司, 1989, p. 49.

46) 周一謀 主編 : 馬王堆醫學考注, 樂群文化事業公司, 1989, p. 115.

47) 周一謀 主編 : 馬王堆醫學考注, 樂群文化事業公司, 1989, p. 115.

48) 周一謀 外 : 馬王堆醫學文化, p. 60.

肝腎이 損傷되어 腎虛肝旺하거나 혹은 다른 疾病에 續發하여 經絡에 痰聚하고 肝氣失調하면 氣逆痰涌하여 清竅가 阻塞하므로 돌연히 발작하는데 遺傳의 素因으로 인하며 兒童期에 多發한다. 임상에서는 癇症을 “陰癇”과 “陽癇”으로 구분하는데 陰癇은 虛寒의 類型에 치우치는 경향이 많아 病人은 일반적으로 체질이 비교적 약하거나 혹은 癇症이 反復發作하여 正氣가 점차 쇠약해져 痰結不化하기 때문에 發作時 面色蒼白, 呆滯無知, 不動不語, 身冷, 脈沈弦하며, 陽癇은 實熱의 類型에 치우치는 경향이 많으니 病人은 일반적으로 體質이 비교적 壯實하고 發作急驟, 突然摔倒, 發啼叫, 抽搐吐涎, 牙關緊閉, 兩目上視, 身熱, 脈弦數한다<sup>49)</sup>.

『內經』에 언급된 癲狂癇의 病因을 종합하여 보면 『靈樞癲狂』에 “狂始生……得之憂饑……狂言……妄行不休者, 得之大恐……狂者……得之有所大喜”<sup>50)</sup>, 『靈樞本神』에 “悲哀動中則傷魂, 魂傷則狂忘不精……喜樂無極則傷魄, 魄傷則狂”<sup>51)</sup>라고 하여 七情所傷을 언급하였으니 七情所傷하면 神志錯亂하여 癲狂이 나타나고, 『素問生氣通天論』에 “陰不勝其陽……并乃狂”<sup>52)</sup>, 『素問宣明五氣篇』에 “邪入於陽則狂”<sup>53)</sup>, 『素問至真要大論』에 “諸躁狂越, 皆屬於火”<sup>54)</sup>, 『素問通評

虛實論』에 “癲疾, 厥狂, 久逆之所生也.”<sup>55)</sup>라고 하여 陽盛氣逆을 언급하였으니 邪氣가 陽分에 入하여 陽熱이 熾盛하고 熱盛하여 氣逆하게 되면 神明이 搖動하여 癲狂이 나타나며, 『靈樞癲狂』에 “狂……少氣之所生也.”<sup>56)</sup>, 『素問腹中論』에 “石之則陽氣虛, 則狂.”<sup>57)</sup>, 『靈樞通天』에 “陽重脫者易狂”<sup>58)</sup>이라고 하여 陽虛氣弱을 언급하였으니 陽虛氣弱하면 神을 主하지 못하여 癲狂이 나타나고, 『素問奇病論』에 “人生而有病癲疾者……此得之在母腹中時, 其母有所大驚, 氣上而不下, 精氣並居, 故令子發爲癲疾也.”<sup>59)</sup>라고 하여 胎中受驚을 언급하였으니 胎中受驚하면 氣亂하게 되고 氣亂하면 氣逆하며 氣逆하면 傷胎하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 馬王堆醫書에서는 癲狂症에 대한 病因, 病機 및 그 구체적인 症候에 대한 언급은 보이지 않고 治療法에 대해서만 논한 반면 『內經』에서는 이에 대한 病因, 病機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癰(癰)病

『五十二病方』의 癰(癰)病論治에 대한 條文은 대략 27條에 달한다. 帛書에 “癰”로 표현된 것은 실제로 “癰”字의 古字이며, 癰과 淋은 동일한 疾病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帛書에서는 “血癰”, “石癰”, “膏癰”, “女子癰” 등이 수록되어 있으니 이들은 후세에 血淋, 石淋, 膏淋, 女子淋이라 일컬어지는 것이다. 帛書에 수록된 癰病의 개념은 광범위

王洪圖 外編：黃帝內經研究大成, 北京, 北京出版社, 1997, p. 1718.

張吉, 聶惠民 編：內經病證辨析, 沈陽, 遼寧科學技術出版社, 1988, p. 202.

49) 周一謀 外：馬王堆醫學文化, p. 60.

50) 洪元植 編：精校黃帝內經,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 252.

51) 洪元植 編：精校黃帝內經,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 224.

52) 洪元植 編：精校黃帝內經,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 14.

53) 洪元植 編：精校黃帝內經,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 51.

54) 洪元植 編：精校黃帝內經,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 188.

55) 洪元植 編：精校黃帝內經,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 61.

56) 洪元植 編：精校黃帝內經,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 252.

57) 洪元植 編：精校黃帝內經,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 81.

58) 洪元植 編：精校黃帝內經,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p. 327~328.

59) 洪元植 編：精校黃帝內經,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 95.

하여 癃閉病뿐만 아니라 淋病까지도 포괄하고 있다<sup>60)</sup>.

癃은 小便淋漓不暢, 排尿困難한 것이요, 閉는 小便点滴不通하는 것으로 癃閉는 모두 水液代謝 障礙로 氣化不利한 것이며, 腎, 膀胱, 肺 및 脾의 機能失調과 관계가 깊다<sup>61)</sup>.

癃病에 대하여 『素問宣明五氣篇』에 “膀胱不利爲癃, 不約爲遺溺”<sup>62)</sup>이라고 하여 癃과 遺溺을 區分하였으며, 『靈樞本輸』에 “手少陽經也……入絡膀胱, 約下焦, 實則癃閉, 虛則遺溺, 遺溺則補之, 閉癃則瀉之.”<sup>63)</sup>라고 하여 『內經』에서는 癃閉의 病因과 病理를 서술하였다.

東漢時代 殤帝의 이름이 劉隆이었기에 당시 醫學文獻에서는 이를 피하여 癃을 淋으로 개칭하게 되었다. 따라서 『傷寒論』과 『金匱要略』에는 “癃閉”라는 病名이 없고 淋病과 小便不利로 기재하였으며, 隋唐부터 金元時期的 醫學文獻에 까지 그 영향이 미쳐 淋病에 대하여는 논하였지만 癃閉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았다. 그 후 明代以後부터 비로소 淋病과 癃閉를 구분하여 辨證論治하였다.

淋病은 小便頻數短澀, 滴瀝刺痛, 出而不盡, 小腹拘急, 或痛引腰腹하는 病證으로 淋病과 癃閉의 相同症狀은 小便不通이며, 차이점은 淋病은 小便時疼痛하나 癃閉에서는 일반적으로 疼痛感이 없는 것이다. 『五十二病方』에서는 癃閉뿐 아니라 淋病조차도 모두 “癃”이라 통칭하였으니 곧 癃인 것이다<sup>64)</sup>.

### ① 脬盈尿不利

『五十二病方』에 “癃, 弱(溺)不利, 脬盈者方: 取棗種(蠶)屑二升, 葵種一升, 合撓, 三分之, 以水一斗半【煮一】分, 孰(熟), 去滓, 有(又)煮一分, 如此以盡三分. 浚取其汁, 以蜜(蜜)和, 令龜(龜)甘, 寒溫適, □飲之. 藥盡更爲, 病【已】而止. ●令.”<sup>65)</sup>이라고 하였으니 이는 膀胱充滿으로 小便不利하는 것을 治療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癃閉病을 治療하는 內服方에 대해 언급하였다.

### ② 冷淋

『五十二病方』에 “癃, 坎方尺有半, 深至肘, 卽燒陳(陳)其中, 令其灰不盈半尺, 薄洒之以美酒, □茜莢一, 棗十四, 癃(癃)之朱(茱)萸(萸), 椒, 合而一區, 燔之坎中, 以陰下. 已, 沃.”<sup>66)</sup>이라고 하였으니 이는 寒淋 즉 冷淋을 治療하는 方이다. 帛書에 비록 이에 대한 症狀를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熱治法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癃, 燔陳芻若陳薪, 令病者北(背)火灸之, 兩人爲靡(磨)其尻, 病已.”<sup>67)</sup>라고 하여 寒淋을 治療하는 外治法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 ③ 石淋

『五十二病方』에 “癃, 痛於脬及衷, 痛甚, 弱(溺)□痛益甚, □□□□. 【治】之, 黑叔(菽)三升, 以美醴三□煮, 疾炊, 彳費(沸), 止火, 彳費(沸)下, 復炊. 參(三)彳費(沸), 止. 浚取【汁】. 牡【厲(蠣)】一, 毒堇治三, 凡【二】物□□. 取三指最(撮)到節一, 醴寒溫適, 入中□飲. 飲先食【後】食次

60) 周一謀 外: 馬王堆醫學文化, p. 61.  
 61) 張吉, 聶惠民 編: 內經病證辨析, 沈陽, 遼寧科學技術出版社, 1988, p. 378.  
 62) 洪元植 編: 精校黃帝內經,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 51.  
 63) 洪元植 編: 精校黃帝內經,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 209.  
 64) 周一謀 外: 馬王堆醫學文化, p. 62.

65) 周一謀 主編: 馬王堆醫學考注, 樂群文化事業公司, 1989, p. 125.  
 66) 周一謀 主編: 馬王堆醫學考注, 樂群文化事業公司, 1989, p. 126.  
 67) 周一謀 主編: 馬王堆醫學考注, 樂群文化事業公司, 1989, p. 127.

(恣). 壹飲病愈(愈), 日壹【飲】, 三日, 病已. 病已, 類石如泔從前出. 毋禁, 毋時. 治厲(蠟): 毒董不暴(曝). 以夏日至到□□毒董, 陰乾, 取葉, 實并治, 裹以韋臧(藏), 用, 取之. 歲【更】取○毒董. 毒董□□□董葉異小, 赤莖, 葉從(縱)縞者, □葉, 實味苦, 前【日】至可六, 七日禾秀(秀), □□□□澤旁. ●令.”<sup>68)</sup>이라고 하였으니 여기에서 말하는 膀胱 및 尿道의 疼痛과 “類石如泔從前出”은 砂淋 즉 石淋의 症狀를 말하는 것이다. 石淋이란 尿로 砂石이 섞여 나오는 것으로 濕熱이 尿液을 煎熬하여 砂石이 形成되어 小便艱澀疼痛, 或尿時忽然中斷, 腰腹絞痛難忍하게 되니 帛書에서도 “痛于脬及衷(中), 痛甚”이라고 그 症狀를 설명하였으며, 이에 대한 治療法을 수록하고 있다.

또한 “石○, 三溫煮石韋若酒而飲之.”라고 하여 石淋을 治療하는 方을 수록하였다.

#### ④ 血淋

『五十二病方』에 “血○, 煮荊, 三溫之而飲之.”<sup>69)</sup>라고 하였으니 血○은 곧 血淋을 말하는 것이다. 血淋이란 小便澀痛有血하는 것으로 이는 濕熱이 膀胱에 下注하여 熱이 盛케 되면 經絡을 燔灼하고 迫血妄行하여 유발되는 것이며, 帛書에서는 이에 대한 治療方을 제시하고 있다.

#### ⑤ 膏淋

『五十二病方』에 “膏○, 溲石大若李木革, 已食飲之. 不已, 復之.”<sup>70)</sup>라고 하였으니 膏○은 곧 膏淋을 말하는 것이다. 膏淋이란 小便이 米泔水처럼

混濁하고 尿道가 熱澀疼痛하는 것으로 濕熱下注하여 絡脈에 阻滯하면 脂液이 常道를 循環하지 못하여 발하며, 帛書에서는 이에 대한 治療方을 제시하였다.

#### ⑥ 女子淋

『五十二病方』에 “女子○, 取三歲陳霍(藿), 烝(蒸)而取其汁, □而飲之.”<sup>71)</sup>, “女子○, 煮隱夫木, 飲之. 居一日, ○(齋)陽□, 羹之.”<sup>72)</sup>라고 하였으니 女子○은 女子淋을 말하는 것으로 女子가 排尿困難하면서 疼痛을 自覺하는 病證인데 妊娠中이나 혹은 産後에 淋病을 얻은 것은 子淋 或 産後淋이라 한다. 帛書에서는 이에 대한 治療方을 제시하였다.

#### ⑦ 膏溺

膏溺과 膏淋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으면서도 서로 구별되니 이들은 모두 小便이 膏脂와 같으나 구별점은 膏淋에서는 小便時 痛證이 있으나 膏溺은 疼痛感이 없다는 것이다. 『五十二病方』에서는 “膏弱(溺): 是胃(謂)內復. 以水與弱(溺)煮陳葵種而飲之, 有(又)○(齋)陽□而羹之.”<sup>73)</sup>라고 하였으니 膏溺은 “內復”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것이니 이는 곧 房事不節의 소치로 볼 수 있다. 이처럼 帛書에서는 膏溺의 治療方에 대해서도 기재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보듯 癰病에 대한 『五十二病方』의 論述은 그 내용이 매우 풍부할 뿐만 아니라 최초로 淋證을 血淋, 石淋, 膏淋, 女子淋으로 구분하

68) 周一謀 主編 : 馬王堆醫學考注, 樂群文化事業公司, 1989, pp. 120~121.

69) 周一謀 主編 : 馬王堆醫學考注, 樂群文化事業公司, 1989, p. 129.

70) 周一謀 主編 : 馬王堆醫學考注, 樂群文化事業公司, 1989, p. 130.

71) 周一謀 主編 : 馬王堆醫學考注, 樂群文化事業公司, 1989, p. 130.

72) 周一謀 主編 : 馬王堆醫學考注, 樂群文化事業公司, 1989, p. 131.

73) 周一謀 主編 : 馬王堆醫學考注, 樂群文化事業公司, 1989, p. 134.

였음을 알 수 있다.

癰閉의 病因, 病機에 대하여 『內經』에서는 『素問·宣明五氣篇』에 “膀胱不利爲癰”<sup>74)</sup>, 『素問·氣厥論』에 “胞移熱於膀胱, 則癰溺血”<sup>75)</sup>, 『靈樞本輸』에 “三焦……實則癰閉”<sup>76)</sup>라고 하여 膀胱, 三焦에 邪氣가 實하게 되면 氣化機能이 失調하므로 癰閉가 된다 하였으며, 『素問·大奇論』에 “肝雍……不得小便”<sup>77)</sup>, 『素問·標本病傳論』에 “脾病……小便閉……腎病……小便閉……胃病……小便閉”<sup>78)</sup>, 『素問·五常政大論』에 “癰閼, 邪傷腎也.”<sup>79)</sup>라고 하여 肝, 脾, 腎, 胃와 같은 臟의 氣機失調로 癰閉가 된다 하였고, 『素問·奇病論』에 “有癰者, 一日數十溲, 此不足也.”<sup>80)</sup>, 『靈樞口問』에 “中氣不足, 溲便爲之變”<sup>81)</sup>이라고 하여 中氣不足으로 인하여 癰閉가 발한다 하였다.

## 2) 馬王堆醫書와 外科學

『五十二病方』은 外科爲主의 醫學著書로 諸傷, 傷痍, 螟(麻風), 狂犬齧人, 犬齧人, 巢者(體臭), 夕下, 身疔(皮膚病), 毒烏喙者(毒箭或毒刀所傷), 螫(蝨傷), 蛭食人胎股(水蛭咬傷), 虻(毒蛇咬傷), 蛇齧, 腫囊(陰囊腫脹), 腸禾貴(疝), 諸痔(牡

痔, 牝痔, 脈痔, 血痔), 胸痒(痔瘻合并蟻蟲感染), 癰, 腫(疽), 爛(爛)者, 肝腺(燒傷), 乾騷(瘙), 加(痂; 疥癬), 漆瘡, 凍瘡, 瘡(瘡) 등과 같은 30餘種의 外科疾患이 수록되어 있다. 外科病에 대한 『五十二病方』의 기재는 비교적 전면적이며, 病證의 分型이나 病因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았지만 處方用藥 및 治療手段은 모두 상당한 수준이 있고 그 내용 또한 매우 풍부하다. 따라서 帛書에 대한 研究는 漢代以前 外科學의 成取와 發展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할 수 있다.

### (1) 外傷과 破傷風

#### ① 諸傷

『五十二病方』에서 “諸傷”이라 한 것은 주로 刀箭傷 및 跌打損傷 등에 대한 治療를 논술한 것으로 17條가 있다. 治療方法으로는 藥物外敷를 위주에 內服方도 기재하였으며, 內服方은 止血劑, 止痛消腫劑 및 創傷口의 感染을 防止하고 創傷口가 愈合된 후 癢痕이 형성되는 것을 豫防하는 製劑 등을 포함하고 있다.

#### ② 止血方

『五十二病方』에서는 “止血出者, 燔髮, 以安(按)其痛.”<sup>82)</sup>라고 하여 刀箭 등으로 인한 外傷으로 出血不止하는 者에 頭髮炭을 활용한다 하였으니 이는 後世에도 상용되는 止血藥이다.

#### ③ 止痛消腫方

『五十二病方』에 “傷者, 以續【斷】根一把, 獨□長支(枝)者二廷(挺), 黃僉今(苓)二挺, 甘草□廷(挺), 秋烏喙(喙)二□□□□者二甌, 卽并煎□孰(熟), 以布提取, 出其汁, 以陳縑□□【傅之】.”<sup>83)</sup>라고 하였으니 이는 跌打損傷을 治療하는

74) 洪元植 編 : 精校黃帝內經,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 51.

75) 洪元植 編 : 精校黃帝內經,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 76.

76) 洪元植 編 : 精校黃帝內經,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 209.

77) 洪元植 編 : 精校黃帝內經,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 96.

78) 洪元植 編 : 精校黃帝內經,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p. 125~126.

79) 洪元植 編 : 精校黃帝內經,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 144.

80) 洪元植 編 : 精校黃帝內經,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 95.

81) 洪元植 編 : 精校黃帝內經,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 263.

82) 周一謀 主編 : 馬王堆醫學考注, 樂群文化事業公司, 1989, p. 54.

83) 周一謀 主編 : 馬王堆醫學考注, 樂群文化事業公司, 1989, p. 58.

外傳方으로 散瘀鎮痛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令金傷母痛方, 取鼯鼠, 乾而治; 取鱉魚, 燔而治; □□, 薪(辛)夷, 甘草各與【鼯】鼠等, 皆合撓, 取三指最(撮)一, 入溫酒一(盃)中而飲之. 不可, 財益藥, 至不癰而止. ●【令】.”<sup>84)</sup>, “令金傷母痛, 取薺孰(熟)乾實, 鱉(熬)令焦黑, 治一; 木朮(朮)根去皮, 治二, 凡二物并和, 取三指最(撮)到節一, 醇酒盈一表(杯), 入藥中, 撓飲. 不者, 酒半(杯). 已飲, 有頃不痛. 復痛, 飲藥如數. 不痛, 毋飲藥. 藥先食後食次(恣). 治病時, 毋食魚, 鱉肉, 馬肉, 龜, 蟲, 葷, 麻○洙采(菜), 毋近內, 病已如故. 治病母時, 壹治藥, 足治病. 藥已治, 裹以繒臧(藏). 治木朮(朮), 暴(曝)若有所燥, 治. 令.”<sup>85)</sup>이라고 하였으니 이는 止痛消腫하는 內服方임을 알 수 있다.

㉔ 感染防止方

『五十二病方』에 “稍(消)石直(置)溫湯中, 以酒癰.”<sup>86)</sup>이라고 하였으니 이는 創傷口の 感染을 防止하고자 하는 外洗方임을 알 수 있고, “□者, 治黃黔(芩)與□□□□□□膏□□之, 卽以布捉【取】, □□□□□□□□混之.”<sup>87)</sup>라고 하였으니 이 條文은 損傷이 매우 심하고 語意가 不完整하지만 黃金과 猪脂가 主藥으로 활용되었음을 보면 이는 殺菌과 感染防止에 활용한 外洗方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㉕ 創傷口愈合後 癍痕生成 防止

『五十二病方』에 “令傷母般(癍), 取鱉膏, □衍并治, 傳之.”<sup>88)</sup>, “以男子洎傳之, 皆不般(癍)”<sup>89)</sup>이라

고 하였으니 이는 外敷方으로 創傷口가 愈合된 후 癍痕이 生成되는 것을 防止하기 위해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㉖ 破傷風

『五十二病方』에는 “傷瘞”에 대해 모두 6條가 있는데 이들은 모두 外傷後 風寒邪氣를 感受하여 瘞攣僵直 或 口噤不開 등이 나타나는 破傷風에 대한 病因, 病機, 症狀 및 治療方法에 대해 논하고 있다.

“傷瘞 : 瘞者, 傷, 風入傷, 身信(伸)而不能詘(屈). 治之, 鱉(熬)鹽令黃, 取一斗, 裹以布, 卒(淬)醇酒中, 入卽出, 蔽以市, 以熨頭. 熱則舉, 適下. 爲□□裹更【熨, 熨】寒, 更(熬)鹽以熨, 熨勿絕. 一熨寒汗出, 汗出多, 能詘(屈)信(伸), 止. 熨時及已熨四日內, □□衣, 毋見風, 過四日自適. 熨先食後次(恣). 毋禁, 毋時. ●令.”<sup>90)</sup>이라고 하여 外傷後에 다시 風寒邪氣를 感受하면 “身伸而不能屈” 즉 全身이 僵直하는 瘞症이 발생하니 藥物로 熱熨하는 方法을 治療法으로 활용한다고 하였다. 또한 “傷而頸(瘞)者, 以水財煮李實, 疾沸而抒, 浚取其汁, 寒和, 以飲病者, 飲以□□故. 節(卽)其病甚弗能飲者, 強啓其口, 爲灌之. 節(卽)毋李實時□□□□□□煮炊, 飲其汁, 如其實數. 毋禁. 嘗【試】. ●令.”<sup>91)</sup>이라고 하여 外傷으로 인해 抽搐瘞攣이 발생하면 李實 즉 李子熬湯을 內服한다 하였고, “治黃黔(芩), 甘草相半, 卽以鱉膏財足以煎之, 煎之費(沸), 卽以布足(捉)之, 予(抒)其汁, □傳□.”<sup>92)</sup>이라고 하였

84) 周一謀 主編 : 馬王堆醫學考注, 樂群文化事業公司, 1989, p. 61.  
85) 周一謀 主編 : 馬王堆醫學考注, 樂群文化事業公司, 1989, p. 62.  
86) 周一謀 主編 : 馬王堆醫學考注, 樂群文化事業公司, 1989, p. 60.  
87) 周一謀 主編 : 馬王堆醫學考注, 樂群文化事業公司, 1989, p. 59.  
88) 周一謀 主編 : 馬王堆醫學考注, 樂群文化事業公司,

1989, p. 56.  
89) 周一謀 主編 : 馬王堆醫學考注, 樂群文化事業公司, 1989, p. 57.  
90) 周一謀 主編 : 馬王堆醫學考注, 樂群文化事業公司, 1989, pp. 65~66.  
91) 周一謀 主編 : 馬王堆醫學考注, 樂群文化事業公司, 1989, p. 67.

으니 이는 破傷風을 治療하는 外傳方임을 알 수 있다.

項背強直, 角弓反張, 四肢抽掣을 主症으로 하는 痙病은 筋脈拘急痙攣의 病에 속하는데 『內經』에는 “痙”외에도 “癱瘓”, “柔痙” 및 “筋急” 등의 명칭이 있다. 痙病은 項背強直이 위주가 되고, 癱瘓은 四肢抽掣이 위주가 되지만 痙病과 癱瘓은 동시에 출현하게 된다<sup>93)</sup>.

『內經』에 언급된 痙病의 病因에 대하여 살펴 보면 『素問·至真要大論』에 “諸痙項強, 皆屬於濕<sup>94)</sup>”이라고 하여 濕邪를, 『素問·至真要大論』에 “諸風強直, 皆屬於風<sup>95)</sup>”, 『靈樞熱病』에 “風痙, 身反折<sup>96)</sup>”이라고 하여 風邪를, 『靈樞熱病』에 “熱而痙者死, 腰折, 癱瘓, 齒噤齧也.”<sup>97)</sup>라고 하여 火熱을 언급하였으니 『內經』에 나타난 痙病의 病因은 주로 外感邪氣가 주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馬王堆醫書에서는 痙病의 病因으로 風邪를 언급한 반면 『內經』에서는 風邪외에도 濕邪, 火熱邪를 언급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內經』은 馬王堆醫書에 비해 더욱 진일보하였음을 알 수 있다.

### ③ 烏喙中毒

『五十二病方』에는 “毒烏喙(喙)者方”으로 7條가 있는데 대부분이 內服方이며 外用方도 있다.

“毒烏喙”란 대략 烏頭毒의 刀箭에 損傷받은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五十二病方』에 “毒烏喙(喙)者：炙□□, 飲小童弱(溺)若產齊赤, 而飲水飲<sup>98)</sup>”라고 하였으니 烏喙는 烏頭를 말하는 것이며, 同書에 “屑勺(芍)藥, 以□半栝(栝), 以三指大掬(撮)飲之.”<sup>99)</sup>, “取杞本長尺, 大如指, 削, 喙(春)木白中, 煮以酒<sup>100)</sup>”, “以□汁粲叔(菽)若苦, 已.”<sup>101)</sup>, “煮鐵, 飲之.”<sup>102)</sup>, “禺(遇)人毒者, 取藥(藤)蕪本若□齊—□□□□□□□□傳宥(痙).”<sup>103)</sup>라고 하여 烏頭毒을 治療하는 內服方 및 外用方에 대해 수록하였다.

## (2) 痔瘻

痔瘻란 痔瘡과 肛瘻를 통칭하는 것으로 평소 濕熱이 內積한데 辛辣燥熱物을 過食하거나 혹은 久坐不動하여 血脈이 不行하거나 혹은 大便秘結이 오래되거나 혹은 婦女子가 臨産時 用力太甚하거나 혹은 久痢不止 등의 연유로 인하여 濁氣瘀血이 肛門에 流注한 所致이다.

### ① 脈痔

『五十二病方』에 “【脈】者：取野獸肉食者五物之毛等, 燔治, 合攪□, 誨(每)且【先】食, 取三【指大撮】三, 以溫酒一杯和, 飲之. 到莫(暮)有

93) 張吉, 聶惠民：內經病證辨析, 沈陽, 遼寧科學技術出版社, 1988, p. 204.

94) 洪元植 編：精校黃帝內經,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 188.

95) 洪元植 編：精校黃帝內經,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 188.

96) 洪元植 編：精校黃帝內經,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 255.

97) 洪元植 編：精校黃帝內經,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 255.

98) 周一謀 主編：馬王堆醫學考注, 樂群文化事業公司, 1989, p. 84.

99) 周一謀 主編：馬王堆醫學考注, 樂群文化事業公司, 1989, p. 85.

100) 周一謀 主編：馬王堆醫學考注, 樂群文化事業公司, 1989, p. 85.

101) 周一謀 主編：馬王堆醫學考注, 樂群文化事業公司, 1989, p. 86.

102) 周一謀 主編：馬王堆醫學考注, 樂群文化事業公司, 1989, p. 86.

103) 周一謀 主編：馬王堆醫學考注, 樂群文化事業公司, 1989, p. 86.

(又)先食飲, 如前數. 恒服藥<sup>104</sup>日, 雖久病必<sup>□</sup>. 服藥時禁母食<sup>肉</sup>, 鮮魚. ●嘗【試】.<sup>104</sup>라고 하였으니 “脈者”란 脈痔를 말하는 것이며, 脈痔란 肛門 周邊에 瘡痒痛이 있는 內痔를 말한다. 帛書에서는 脈痔의 治療法에 대해 說明하였다.

### ② 牝痔

帛書에는 牝痔에 관하여 4條가 있어 牝痔의 發病部位, 症狀과 治療方法에 대해 서술하였다. 牝痔란 外痔를 말하는 것으로 肛門外部의 痔疾을 말한다. 『五十二病方』에 “【牝】痔：有羸肉出, 或如鼠乳狀, 末大本小, 有空(孔)其中. □之, 疾久(灸)熱, 把其本小者而<sup>整</sup>絕之, 取內戶旁洞空中黍臛, 燔死人頭皆治, 以臛膏濡, 而人之其空(孔)中.”<sup>105</sup>이라고 하여 牝痔의 痔核이 늙은 쥐의 乳頭처럼 頭部가 크고 根部位가 작은 것의 治療는 灸法을 先行한다 하였고, 同書에 “多空(孔)者, 烹(烹)肥羶, 取其汁<sup>脊</sup>脊(漬)美黍米三斗, 炊之, 有(又)以<sup>瀹</sup>瀹之, 孰(熟), 分以爲二, 以<sup>□□□</sup>各<sup>□</sup>一分, 卽取<sup>蓑</sup>蓑(鈴)末, 菽醬之<sup>辛</sup>辛(滓)半, 并<sup>春</sup>春(春), 以傳痔空(孔), 厚如非葉, 卽以厚布裹, <sup>□□</sup>更溫, 二日而已.”<sup>106</sup>라고 하였으니 “多孔者”란 瘻管이 비교적 많은 牝痔를 말하는 것이며 이는 일종의 外治方임을 알 수 있다. 『五十二病方』에 “牝痔居竅旁, 大者如棗, 小者如棗<sup>核</sup>(核)者方：以小角之如孰(熟)二斗米頃, 而張角, 繫以小繩, 剖以刀. 其中有如兔臛, 若有堅血如拍末而出者, 卽已. ●令.”<sup>107</sup>이라고 하여 外痔를 治療하는 方法으로 角法을 언

급하였고, 同書에 “牝痔之居竅廉(廉), 大如棗<sup>核</sup>(核), 時養(癢)時痛者方：先剝(剝)之；弗能剝(剝), □龜<sup>腦</sup>(腦)與地膽蟲相半, 和, 以傳之. 燔小隋(隋)石, 淬醢中, 以熨. 不已, 有(又)復之, 如此數. ●令.”<sup>108</sup>이라고 하여 外痔로 時痒時痛할 때는 먼저 칼로 痔核을 剖開하며, 剖開할 수 없을 때는 龜腦와 地膽蟲 同量을 粉碎하여 섞은 후 痔核에 붙여 治療하며, 최후에는 橢圓形의 작은 砒石을 붙여 달궈 식초에 담근 후 熱熨法을 활용하는데 治愈되지 않으면 수차례 반복하여 治療를 행한다고 하였다.

### ③ 牝痔

『五十二病方』에는 牝痔에 관하여 모두 8條의 原文이 있으나 그 중 1條는 血痔에 관계된 條文이다. 牝痔란 內痔를 말하는 것이니 帛書에서 “痔之入竅中”<sup>109</sup>이라 한 것은 肛門內의 痔瘡를 말하는 것이다. 帛書에서는 牝痔의 구체적인 症狀 및 各種治療方法에 대해 說明하였다. 治療法으로는 外治法爲主에 內治 혹은 內外治를 서로 결합하여 활용하는 방법도 제시되었으며, 外治法中에서는 熏法과 坐浴療法 및 정교한 手術療法이 소개되어 있다.

#### ㉠ 內治法

『五十二病方』에 “治藥(藤)蕪本, 方(防)風, 烏<sup>喙</sup>(喙), 桂皆等, 漬以淳酒而熵之, 大如黑叔(菽), 而吞之. 始食一, 不智(知)益一, □爲極. 有(又)可, 以領傷. 恒先食食之.”<sup>110</sup>라고 하였으니 이는 牝痔를 治療하는 內服丸藥方임을 알 수 있다.

#### ㉡ 內外兼治

104) 周一謀 主編：馬王堆醫學考注, 樂群文化事業公司, 1989, p. 152.  
105) 周一謀 主編：馬王堆醫學考注, 樂群文化事業公司, 1989, p. 153.  
106) 周一謀 主編：馬王堆醫學考注, 樂群文化事業公司, 1989, p. 155.  
107) 周一謀 主編：馬王堆醫學考注, 樂群文化事業公司, 1989, p. 156.

108) 周一謀 主編：馬王堆醫學考注, 樂群文化事業公司, 1989, pp. 156~157.  
109) 周一謀 主編：馬王堆醫學考注, 樂群文化事業公司, 1989, p. 158.  
110) 周一謀 主編：馬王堆醫學考注, 樂群文化事業公司, 1989, p. 162.

『五十二病方』에 “【牝】痔之入竅中寸，狀類牛幾三□□然，後而潰出血，不後上鄉(嚮)者方：取弱(溺)五斗，以煮青蒿大把二，鮓魚如手者七，冶桂六寸，乾(薑)二果(顆)，十沸，杼置穽中，狸(埋)席下，爲竅，以熏痔，藥寒而休。日三熏，因(咽)飲，飲藥將(漿)，毋飲它。爲藥漿方：取(薯)苽(蓴)汁二斗以漬之，以爲漿，飲之，病已而已。”<sup>111)</sup>라고 하여 內痔가 소의 형상처럼 되어 3개 이상으로 大便時에는 流血不止하고 不大便時에는 痔核이 위로 收縮되어 진 것은 外熏法과 內服法을 결합하여 治療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痔者，以醬灌黃雌鷄，令自死，以菅裹，塗(塗)上(土)，炮之。塗(塗)乾，食鷄，以羽熏竅。”<sup>112)</sup>이라고 하여 內外治를 서로 결합한다고 하였다.

㊸ 外治法

『五十二病方』에 “牝痔有空(孔)而樂，血出者方：取女子布，燔，置器中，以熏痔，三【日】而止。”<sup>113)</sup>라고 하여 內痔로 瘻管이 彎曲되어 出血이 되었을 때 熏法을 활용하는 것을 설명하였으며, 同書에 “牝痔之有數竅，蟻白徒道出者方：先道(導)以滑夏鋌，令血出。穿地深尺半，袤尺，【廣】三寸，【燔】□炭其中，段(煨)駱阮少半斗，布炭上，【以】布周蓋，坐以熏下竅。烟(滅)火(滅)□以□。日一熏，下□□而□。五六日清□□□□。駱阮一名曰白苦，苦浸。”<sup>114)</sup>이라고 하여 內痔에 瘻管이 여럿 있고 다수의 蟻蟲이 孔竅로부터 나올 때는 마땅히 먼저 楸木棒을 孔竅에 삽입하여 出血시킨 뒤 熏法

을 활용한다 하였다.

㊹ 精巧한 手術療法

『五十二病方』에서는 “巢塞直(臚)者，殺狗，取其脬，以穿籥，入直(臚)中，炊(吹)之，引出，徐以刀【剝(剝)】去其巢。治黃黔(芎)而婁(屢)傳之。人州出不可入者，以膏膏出者，而到(倒)縣(懸)其人，以寒水淩(澆)其心腹，入矣。”<sup>115)</sup>라고 하였으니 이는 瘻管과 脫肛의 治療에 있어 精巧한 手術療法에 대하여 설명한 것으로 “巢”란 多孔의 瘻管을, 直이란 直腸 혹은 肛門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肛門에 생긴 多孔의 瘻管이 塞滿하였을 때 狗脬를 竹管에 넣고 이를 다시 肛門에 삽입하여 狗脬를 膨脹시키면 痔瘻가 나오게 되는데 이 때 칼로 이를 제거한다고 하여 手術療法을 활용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④ 血痔

『五十二病方』에 “血月寺(痔)，以弱(溺)執(熱)煮一牡鼠，以氣熨。”<sup>116)</sup>라고 하여 血痔를 熏法으로 治療하는 것에 대해 설명하였다.

⑤ 胸養(痒)

『五十二病方』에 “胸養(癢)：痔，痔者其直(臚)旁有小空(孔)，空(孔)兌兌然出，時從其空(孔)出有白蟲時從其空出，其直(臚)痛，尋(燭)然類辛狀。治之以柳葦一揆，艾二，凡二物。爲穿地，令廣深大如(覆)之。以土雍(壅)會母□，烟能火世(泄)，即被□以衣，而毋蓋其□空(孔)。即令痔者居(踞)□，令直(臚)直(值)□空(孔)，令烟熏直(臚)。熏直(臚)熱，

111) 周一謀 主編：馬王堆醫學考注，樂群文化事業公司，1989, p. 158.

112) 周一謀 主編：馬王堆醫學考注，樂群文化事業公司，1989, p. 161.

113) 周一謀 主編：馬王堆醫學考注，樂群文化事業公司，1989, p. 160.

114) 周一謀 主編：馬王堆醫學考注，樂群文化事業公司，1989, p. 160.

115) 周一謀 主編：馬王堆醫學考注，樂群文化事業公司，1989, p. 163.

116) 周一謀 主編：馬王堆醫學考注，樂群文化事業公司，1989, p. 163.

則舉之；寒，則下之；圈(倦)而休。”<sup>117)</sup>라고 하였으니 胸癢이란 肛門의 癢痒이니 直腸옆에 작은 癢管이 있어 管으로 蟻蟲이 出入하여 癢痒이 나타나는 것이며, 直腸疼痛하니 이는 腸痔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帛書에서는 이에 대한 治療法으로 藥物과 熏蒸法을 서로 겸하여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內經』에서는 痔症에 대하여 『素問生氣通天論』에 “因而飽食，筋脈橫解，腸澀爲痔”<sup>118)</sup>, 『靈樞邪氣藏府病形』에 “腎脈……澹甚爲大癰，微澹爲不月，沈痔”<sup>119)</sup>라고 하여 飽食 및 氣血阻滯로 인하여 痔가 발생한다 하였다.

### (3) 癩疔

帛書 『五十二病方』에서 논한 “癩疔”의 原文은 모두 24條가 있어 비교적 이에 대하여 중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 ① 藥物療法

『五十二病方』에는 “灸蠶卵，令簍簍黃，治之，三指最(撮)至節，入半盞(杯)酒中飲之，三，四日”<sup>120)</sup>, “夕母食，旦取丰(蜂)卵一，漬美醴(杯)，以飲之”<sup>121)</sup>, “以冥蠶種方尺，食衣白魚一七，長足二七，熬蠶種令黃，靡(磨)取蠶種治，亦靡(磨)白魚，長足，節三，并以醴二升和，以先食飲之，嬰以一升”<sup>122)</sup>이라고 하여 癩疔을 治療하는 藥物療法에 대

하여 설명하였다.

#### ② 砭灸療法

『五十二病方』에는 “癩(癩)，先上卵，引下其皮，以石已(砭)穿其【隋(睢)]旁；□□汁及膏□，撓以醇□。有(又)久(灸)其疔，勿令風及，易瘳；而久(灸)其泰(太)陰，泰(太)陽□□。【●】令。”<sup>123)</sup>이라고 하여 癩疔을 治療함에 있어 먼저 辜丸을 위로 당기고 陰囊皮를 牽引한 후 砭石으로 陰部附近을 刺하고 藥汁藥膏 및 淳酒類를 塗하고서 砭刺한 곳을 灸한다 하였으니 이는 風寒邪氣를 感受하는 것을 防止하고 쉽게 治愈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外治療法

『五十二病方』에서 “穿小瓠壺，令其空(孔)盡容癩(癩)者腎與月最，即令癩(癩)者煩夸(瓠)，東鄉(嚮)坐於東陳垣下，即內(納)腎月最於壺空(孔)中，而以采爲四寸杵二七，即以采木椎(剝)之。一□□，再靡(磨)之。已剝(剝)，輒接杵垣下，以盡二七杵而已。爲之恒以入月旬六日□□盡，日一爲，□再爲之，爲之恒以星出時爲之，須癩(癩)已而止。”<sup>124)</sup>라고 하였으니 이는 癩疔의 外治療法임을 알 수 있고, 同書에 “癩(癩)，以奎蠶蓋其堅(腎)，即取桃支(枝)東鄉(嚮)者，以爲弧；取□母 □□□□□□□□□□上，晦，壹射以三矢，□□飲樂(藥)。其藥日陰乾黃牛膽。乾即稍□□□□□□□□□□，飲之”<sup>125)</sup>라고 하였으니 이는 內治와 外治를 서로 결합하여 활용하는 治療法임을 알 수 있다.

疔症은 小腹疼痛과 함께 外陰이 墮腫하는 疾患을 말한다<sup>126)</sup>. 歷代醫書에 疔症에 관한 論述이 많

117) 周一謀 主編：馬王堆醫學考注，榮群文化事業公司，1989, p. 165.  
118) 洪元植 編：精校黃帝內經，서울，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1981, p. 15.  
119) 洪元植 編：精校黃帝內經，서울，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1981, p. 215.  
120) 周一謀 主編：馬王堆醫學考注，榮群文化事業公司，1989, p. 140.  
121) 周一謀 主編：馬王堆醫學考注，榮群文化事業公司，1989, p. 151.  
122) 周一謀 主編：馬王堆醫學考注，榮群文化事業公司，1989, p. 145.

123) 周一謀 主編：馬王堆醫學考注，榮群文化事業公司，1989, p. 147.  
124) 周一謀 主編：馬王堆醫學考注，榮群文化事業公司，1989, p. 146.  
125) 周一謀 主編：馬王堆醫學考注，榮群文化事業公司，1989, p. 148.  
126) 張吉，聶惠民：內經病證辨析，沈陽，遼寧科學技術出

아 腹部의 劇烈한 疼痛과 二便不通을 겸한 病證, 辜丸 및 陰囊部位의 生殖器 病證, 體腔內容物이 외부로 돌출하여 나타나는 病證 등을 疝證으로 보았으며, 現代醫學에서 말하는 疝이란 실제로 腸腔內의 내용물이 腹壁, 腹股溝 및 腹腔에서 陰囊으로 進入하는 疾病을 말한다<sup>127)</sup>.

疝病을 『素問長刺節論』에서는 “病在少腹, 腹痛不得大小便, 病名曰疝.”<sup>128)</sup>이라고 하였으며, 『素問骨空論』에서는 “任脈爲病, 男子內結七疝.”<sup>129)</sup>이라고 하였으니 七疝이란 衝疝, 狐疝, 癰疝, 厥疝, 癢疝, 癢疝 및 癢疝을 말하는 것으로 癰疝은 七疝中 하나로 볼 수 있다.

癰疝에 대하여 『內經』에서는 『素問陰陽別論』에 “三陽爲病 …… 其傳爲癰疝”<sup>130)</sup>, 『素問脈解篇』에 “厥陰所謂癰疝, 婦人少腹腫者, 厥陰者, 辰也, 三月陽中之陰, 邪在中, 故曰癰疝, 少腹腫也. …… 所謂癰疝疔膚脹者, 曰陰亦盛, 而脈脹不通, 故曰癰疝也.”<sup>131)</sup>, 『素問至眞要大論』에 “陽明司天, 燥淫所勝 …… 丈夫癰疝”<sup>132)</sup>, “陽明之勝, 清發於中 …… 外發癰疝”<sup>133)</sup>이라고 하여 癰疝이 형성되는 機轉에 대해 설명하였다.

#### (4) 癰과 疝(疝)

癰이란 癰腫을 말하니 毒邪가 氣血을 壅塞하

로 腫脹不通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外癰과 內癰으로 대별할 수 있으니 內癰은 臟腑에, 外癰은 體表에 생하는 것으로 帛書에서는 모두 外癰에 대해 논하고 있다. 雖란 通疝니 疝란 毒邪가 氣血을 阻滯하여 通行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癰과 疝은 서로 관계가 있으면서도 서로 구별되지만 古書에서는 이들을 서로 혼동하기도 하였고 때로는 서로 구별하기도 하였다. 『靈樞癰疽篇』에서는 “大熱不止, 熱勝, 則肉腐, 肉腐則爲膿. 然不能陷骨髓, 不爲焦枯, 五臟不爲傷, 故命曰癰. …… 熱氣淳盛, 下陷肌膚, 筋髓枯, 內連五臟, 血氣竭, 當其癰下, 筋骨良肉皆無餘, 故命曰疝.”<sup>134)</sup>라고 하여 癰과 疝을 區別하였지만 同篇에 “癰發于脛中, 名曰猛疝”<sup>135)</sup>라고 하여 癰과 疝을 서로 혼용하였다. 後世 醫家들은 陰陽寒熱로 癰과 疝을 서로 구분하였으니 癰은 陽證, 熱證에 속하고, 疝은 陰證, 寒證에 속한다고 하였다.

帛書 『五十二病方』에서는 비록 癰과 疝을 分別하여 논술하고 있지만 陰陽寒熱의 辨證에 근거하여 구분하지는 않고 있다.

##### ① 癰

帛書 『五十二病方』에는 癰에 대한 論治가 모두 8條가 있는데 이중 1條는 美容方이고, 나머지 7條는 모두 癰症을 治療하는 것이다. 帛書에는 癰首, 體癰과 頤癰 등과 같은 명칭이 보이는데 이는 癰이 발생하는 不同한 部位에 근거하여 命名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 ① 藥物外敷

『五十二病方』에 “頤癰者, 治半夏一, 牛煎脂二, 醴六, 并以鼎□□□如□米禾, 以傅. 勿盡傅.”

版社, 1988, p. 367.

127) 周一謀 外: 馬王堆醫學文化, p. 81.

128) 洪元植 編: 精校黃帝內經,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 105.

129) 洪元植 編: 精校黃帝內經,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 113.

130) 洪元植 編: 精校黃帝內經,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 22.

131) 洪元植 編: 精校黃帝內經,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 99.

132) 洪元植 編: 精校黃帝內經,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 180.

133) 洪元植 編: 精校黃帝內經,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 181.

134) 洪元植 編: 精校黃帝內經,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 348.

135) 洪元植 編: 精校黃帝內經,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 347.

圓一寸。乾，復傅之，而以湯洒去藥，已矣。”<sup>136)</sup>라고 하여 面部癰腫을 治療하는 外傳方을 提示하였다.

㉠ 熱熨法

『五十二病方』에 “癰種(腫)者，取烏(喙)，黎(藜)盧，治之，□□□□□□□□□□之，以熨腫(腫)所，有可，□□手，令癰種(腫)者皆已。”<sup>137)</sup>라고 하여 熱熨方을 제시하였다.

㉡ 灸烤法

『五十二病方』에서는 “身有體癰種(腫)者方：取牡□一，夸就□□□□□□□□炊之，候其洎不盡一斗，抒臧(藏)之，稍取以塗身月豐(體)種(腫)者而灸之，□□□□□□【癰】種(腫)盡去，已。嘗試。●令.”<sup>138)</sup>이라고 하였으니 體癰이란 臍腰나 혹은 膀腹部位에 발생하는 癰腫을 말하는 것이며, 이는 먼저 藥汁을 癰腫部位에 塗布한 後에 灸烤法을 활용하는 것으로 藥療法과 理療法을 서로 결합한 다고 하였다.

㉢ 用法不明

『五十二病方』에 “癰首，取苳半斗，細西(尊)而以善截六斗□□□□□□如此□□醫以此教惠。”<sup>139)</sup>이라고 하였으니 이는 頭部癰腫의 治療에 대한 방법을 술한 것이지만 文 損으로 하여 그 자세한 용법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가 없다.

㉣ 美容方

『五十二病方』에 “白芷，白衡，菌(桂)，桔(薑)蘆，薪(新)雉，●凡五物等。已治五物□□□取牛脂□□□細布□□，并以金銚燻桑炭，龜(纒)弗

(沸)，發(歛)，有(又)復燻(沸)，如此□□□布

【抒】取汁水銀(磨)掌中，以和藥，傅。且以濡漿細□□□之□□□□□。傅藥母食□□肉，魚及女子。已，面類□□者。”<sup>140)</sup>라고 하여 美容方을 제시하였으니 이는 美容과 癰을 治療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相關關係가 있다고 생각하여 治癰部分에 삽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本文에 언급된 藥物中 水銀을 제외한 다른 藥物들은 美容이나 혹은 香體의 藥物과는 相關되나 治癰의 效能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 疔(疽)

『五十二病方』에는 疔 즉 疽에 대한 술이 모두 18條가 있으며, 그 중 11條는 비교적 보존상태가 양호하다. 帛書에는 骨疽, 肉疽, 腎疽, 益(陰)疽, 血疽, 氣疽, 爛疽 등과 같은 명칭이 보이니 이는 당시의 證에 대한 初보적 證類型으로 볼 수 있다. 후세에는 證을 有頭疽와 無頭疽로 大別하니 有頭疽는 皮膚肌肉間에 發生한 急性化膿性疾患이요, 無頭疽는 附骨疽, 咬骨疽 등과 같은 骨節 및 肌肉深部에 發生한 腫瘍病을 말한다<sup>141)</sup>. 帛書에서 論하고 있는 疔病은 절대다수가 有頭疽이며, 主要治療方法으로는 內服, 外傳, 熱熨 및 灸療法 등을 제시하였다.

㉥ 內服藥物

『五十二病方』에 “疔(疽)病：治白(菝)藪，黃(蒼)耆(耆)，芍(藥)藥，桂，薑(薑)，椒，朱(菜)與(莫)，凡七物。骨疔(疽)倍白(菝)藪，【肉】疔(疽)【倍】黃(蒼)耆(耆)，腎疔(疽)倍芍(藥)藥，其餘各一。并以三指大(撮)一入(杯)酒中，日五六飲之。須已。”<sup>142)</sup> “疔

136) 周一謀 主編：馬王堆醫學考注，樂群文化事業公司，1989, p. 203.  
137) 周一謀 主編：馬王堆醫學考注，樂群文化事業公司，1989, p. 199.  
138) 周一謀 主編：馬王堆醫學考注，樂群文化事業公司，1989, p. 203.  
139) 周一謀 主編：馬王堆醫學考注，樂群文化事業公司，1989, p. 199.

140) 周一謀 主編：馬王堆醫學考注，樂群文化事業公司，1989, p. 201.  
141) 周一謀 外：馬王堆醫學文化，pp. 85~86.  
142) 周一謀 主編：馬王堆醫學考注，樂群文化事業公司，1989, p. 168.



矣.”<sup>154</sup>)라고 하였으니 癰疽가 發生하는 基本病理는 血氣壅滯, 血肉腐敗, 火毒으로 요약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五十二病方』에서는 최초로 癰疽를 언급하고 頤癰, 癰首, 股癰, 骨疽, 肉疽, 血疽, 氣疽, 爛疽 등으로 분류하였으나 『內經』에서는 病이 表淺部에 있고 六腑가 損傷된 것을 癰, 病이 深部에 있으며 五臟까지 영향을 미친 것을 疽라하고 不同한 病因, 病位 및 不同한 症狀에 따라 不同한 病名으로 분류하였으니 『靈樞癰疽』에서는 猛疽, 天疽, 腦爛, 疵癰, 米疽, 馬刀挾癰, 井疽, 甘疽, 敗疵, 股脛疽, 銳疽, 赤施, 疵疽, 兔齧, 走緩, 四淫, 厲癰, 脫癰 등의 18種으로 분류하였고, 기타 各篇에 나타난 바를 살펴보면 骨疽, 肉疽, 胃脘癰, 腸癰, 頸癰, 掖癰, 暴癰, 內癰, 大癰 등의 명칭이 나타나 있으며, 또한 癰疽의 治療에 대해서도 『內經』에서는 藥物內服, 藥物外敷, 砭刺擴創, 引流排膿 및 鍼灸治療 등의 방법을 제시하였다<sup>155</sup>).

### (5) 燒傷 等

『五十二病方』에 기재된 “□闌(爛)者方”과 “臍臑 및 胎傷 등은 燒傷에 대하여 論治하고 있다.

#### ① □闌(爛)者方

□闌(爛)者方에서는 燒傷 및 癍痕을 治療하는 방법을 기재하였으며, 이들은 모두 18條로 주로 藥物의 外傳, 熱熨, 熏法 및 祝由 등에 대해 기재하였다.

#### ㉠ 一般燒傷의 治療

『五十二病方』에서는 “闌(爛)者方：以人泥塗之，以犬毛若羊毛封之。不已，復以罔。”<sup>156</sup>)라고 하

였으니 爛이란 燒傷을 말하는 것이며, 人泥는 頭垢, 耳垢 및 膝頭垢 등을 포함한 人垢를 말한다. 또한 同書에서는 “闌(爛)者：爵(嚼)糜米，足(捉)取汁而煎，頰類膠，即治厚柑和傅。”<sup>157</sup>), “以鷄卵弁兔毛，傅之。”<sup>158</sup>), “治糜米，以乳汁和，傅之，不痛，不癍。”<sup>159</sup>), “漬女子布，以汁傅之。”<sup>160</sup>), “浴湯熱者熬罔矢，漬以醢(醢)，封之。”<sup>161</sup>)라고 하여 外傳方을 提示하였고, “蒸(蒸)罔土，裹以熨之。”<sup>162</sup>)라고 하여 熱熨法을 제시하였다.

#### ㉡ 減癍痕方

『五十二病方』에 “般(癍)者，以水銀二，男子惡四，丹一，并和，置突【上】二，三月，盛(成)即□□□囊而傅之。傅之，居室塞窗閉戶，毋出，私內中，毋見星月一月，百日已。”<sup>163</sup>)라고 하여 燒傷後 皮膚에 癍痕이 남는 것을 防止하기 위한 목적으로, “去故般(癍)：善削瓜壯者，而其瓣材其瓜，其□如兩指，以靡(磨)般(癍)令□□之，以□□傅之。乾，有(又)傅之，三而已。必善齋(齋)戒，毋□而已。”<sup>164</sup>)라고 하여 舊癍을 治療하는 外傳方으로, “取秋竹者(煮)之，而以氣熏其瘡，已。”<sup>165</sup>)라고 하여 癍痕을

154) 洪元植 編：精校黃帝內經，서울，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1981，p. 347.  
155) 王洪圖 外編：黃帝內經研究大成，北京，北京出版社，1997，pp. 1893~1894.

156) 周一謀 主編：馬王堆醫學考注，榮群文化事業公司，1989，p. 176.  
157) 周一謀 主編：馬王堆醫學考注，榮群文化事業公司，1989，p. 176.  
158) 周一謀 主編：馬王堆醫學考注，榮群文化事業公司，1989，p. 178.  
159) 周一謀 主編：馬王堆醫學考注，榮群文化事業公司，1989，p. 179.  
160) 周一謀 主編：馬王堆醫學考注，榮群文化事業公司，1989，p. 180.  
161) 周一謀 主編：馬王堆醫學考注，榮群文化事業公司，1989，p. 180.  
162) 周一謀 主編：馬王堆醫學考注，榮群文化事業公司，1989，p. 180.  
163) 周一謀 主編：馬王堆醫學考注，榮群文化事業公司，1989，p. 181.  
164) 周一謀 主編：馬王堆醫學考注，榮群文化事業公司，1989，pp. 181~182.  
165) 周一謀 主編：馬王堆醫學考注，榮群文化事業公司，

治療하는 蒸氣熏蒸法에 대해 기재하였다.

② 胎腫의 治療

胎腫란 小腿部의 燒傷이나 燙傷을 말하는 것으로 『五十二病方』에 “胎腫：治胎腫，取陳黍，叔(菽)，治，以犬膽和，以傅。”<sup>166)</sup>，“夏日取董葉，冬日取其本，皆以甘(口)咀(咀)而封之。乾，輒封其上，此皆已驗。”<sup>167)</sup>라고 하여 外傳方을 제시하였다.

③ 胎傷의 巧妙治法

『五十二病方』에 “胎傷：取久溺中泥，善擇去其蔡，沙石，置泥器中，且以苦酒□□，以泥【傅】傷，傅□□之，傷已。已用。”<sup>168)</sup>라고 하여 小腿의 外傷이나 혹은 燒傷後에 활용하는 外傳方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胎久傷：胎久傷者癰，癰潰，汁如糜(糜)，治之，煮水二【斗】，鬱一參，罌(朮)一參，□【一參】●凡三物。鬱，罌(朮)皆【治】，□湯中即炊湯。湯溫適，可入足，即置小木湯中，即□□居□□，入足湯中，踐木滑□。湯寒則炊之，熱即止火，自適醫爰(也)。朝已食而入湯中，到舖【時】出休，病即愈(愈)矣。病不□者一入湯中即瘳，其甚者五，六入湯中而瘳。其瘳醫爰(也)□癰，□癰而新肉產。肉產，即母入【湯】中矣，即自合而瘳矣。服藥時毋禁，及治病毋時。●令。”<sup>169)</sup>라고 하여 小腿部位의 外傷이나 혹은 燒傷의 時間이 오래 경과하여 潰爛이 형성된 癰瘡으로 膿水不止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 治法은 매우 巧妙한데

주작용은 藥湯에 洗浴하는 것과 熏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6) 疥癬等 皮膚病

『五十二病方』에는 “加(痂)”와 “乾騷(瘙)”의 二種疾病에 대한 기재가 있으니 이들은 실제로 疥癬類의 皮膚病이라 할 수 있다.

① 加(痂)

『五十二病方』에는 “加(痂)”에 관한 條文이 24條가 있고, 處方은 주로 藥物을 外傳하여 治療하는 방법을 활용하며, 熱熨方 및 包扎方도 활용하고 있다.

㉠ 外用藥物塗敷

『五十二病方』에 “治雄黃，以罌膏(瀹)，少殼以醴，令其□溫適，以傅之，傅之母濯。【先】孰酒加(痂)以湯，乃傅。”<sup>170)</sup>，“也僕癩，以攻(釘)脂餼而傅。傅，灸之。三，四傅。”<sup>171)</sup>，“刑赤蜋，以血塗(塗)之。”<sup>172)</sup>，“治亭(葶)磨(蔴)，莖夷(莢)，熬叔(菽)□□皆等，以牡(膏)鱸血餼。【先】以酒洒，燔樸炙之，乃傅。”<sup>173)</sup>，“治牛膝，燔髻灰等，并□□，孰酒加(痂)而傅之。炙牛肉，以久脂塗(塗)其上。雖已，復傅勿擇(釋)。”<sup>174)</sup>，“取慶(蜩)良(螂)一斗，去其甲足，以烏(喙)五果(顆)，譽大如李，并以敲□斗煮之，沓，以傅之。”<sup>175)</sup>，“善洒，糜(磨)之血，以水銀傅，【有

1989, p. 183.  
166) 周一謀 主編：馬王堆醫學考注，樂群文化事業公司，1989, p. 183.  
167) 周一謀 主編：馬王堆醫學考注，樂群文化事業公司，1989, p. 185.  
168) 周一謀 主編：馬王堆醫學考注，樂群文化事業公司，1989, p. 185.  
169) 周一謀 主編：馬王堆醫學考注，樂群文化事業公司，1989, p. 186.

170) 周一謀 主編：馬王堆醫學考注，樂群文化事業公司，1989, p. 188.  
171) 周一謀 主編：馬王堆醫學考注，樂群文化事業公司，1989, p. 189.  
172) 周一謀 主編：馬王堆醫學考注，樂群文化事業公司，1989, p. 189.  
173) 周一謀 主編：馬王堆醫學考注，樂群文化事業公司，1989, p. 190.  
174) 周一謀 主編：馬王堆醫學考注，樂群文化事業公司，1989, p. 190.  
175) 周一謀 主編：馬王堆醫學考注，樂群文化事業公司，1989, p. 192.

(又) 以金(鎔)治末皆等, 以膏【鏘而】傳【之】.<sup>176)</sup> “壽(擣)慶(蜚)良(螂)鏘以醴, 封而炙之, 蟲環出.”<sup>177)</sup> “產痂 : 先善以水洒, 而灸蛇膏令消, 傳, 三傳.”<sup>178)</sup> “乾加(痂) : 治蛇牀實, 以牡膏鏘, 先括(刮)加(痂)潰, 卽傳而□□乾, 去□目□.”<sup>179)</sup>라고 하여 痂症에 활용하는 外傳方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㉑ 熱熨法

『五十二病方』에 “燔(燔)治烏(喙), 黎(藜)盧, 蜀叔(菽), 庶, 蜀椒, 桂各一合, 并和, 以頭脂□□□布炙以熨, 卷(倦)而休.”<sup>180)</sup>라고 하였으니 이는 藥物을 사용한 熱熨法으로 瘡瘍이 陰寒에 치우친 자에 활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㉒ 藥物包扎

『五十二病方』에 “大皮桐, 以蓋而約之, 善.”<sup>181)</sup>라고 하여 桐皮로 患部를 덮어 묶는 법을 제시하였고, “治莖夷(莖), 苦瓠瓣, 並以(職)膏(膏)并, 傳之, 以布裹【而】約之.”<sup>182)</sup>라고 하여 外傳와 包扎을 겸용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㉓ 乾騷(瘙)

『五十二病方』에는 乾騷(瘙)方이 모두 8條가 수록되어 있다. 乾騷는 곧 乾瘙이며, 瘙는 搔와 같으니 乾瘙 역시 疥癬類에 속하는 皮膚病으로 볼

수 있다. 그 治療法으로 『五十二病方』에서는 內服, 外傳, 外塗, 熱熨 및 洗浴 등의 방법을 제시하였다.

㉑ 內服藥

『五十二病方』에 “熬(菱)菽(芰)一參, 令黃, 以淳酒半斗煮之, 三沸止, 其汁, 夕毋食, 飲.”<sup>183)</sup> “以般服零, 最(撮)取大者一枚, 壽(擣). 壽(擣)之以(春), 脂并之, 以爲大丸, 操.”<sup>184)</sup>라고 하여 內服藥에 대해 기재하였다.

㉒ 外用藥

『五十二病方』에 “乾騷(瘙)方 : 以雄黃二兩, 水銀兩少半, 頭脂一升, □【雄】黃(磨)水銀手□□□□□雄黃, 執撓之, 先孰洒騷(瘙)以湯, 潰其灌, 撫以布, 令□□而傳之, 一夜一□.”<sup>185)</sup> “取茹盧(盧)本, 之, 以酒漬之, 後日一夜, 而以【塗(塗)】之, 已.”<sup>186)</sup>라고 하여 乾瘙에 활용하는 外用藥에 대해 기재하였다.

㉓ 熱熨

『五十二病方』에 “取梨(藜)盧二齊, 烏(喙)一齊, 磬一齊, 屈居(据)□齊, 芫華(花)一齊, 并和以車故脂, 如□□□裹, 善洒, 乾, 節(卽)炙(藥), 以(磨)其騷(瘙), □(磨)脂□□脂, 騷(瘙)卽已.”<sup>187)</sup>라고 하여 熱熨方을 제시하였다.

㉔ 洗浴方

『五十二病方』에 “取蘭(蘭)根, 白付, 小剉一升, 春之, 以載, 沐相半泊之, 纒(纒)□□, 置溫所三

176) 周一謀 主編 : 馬王堆醫學考注, 榮群文化事業公司, 1989, p. 191.  
177) 周一謀 主編 : 馬王堆醫學考注, 榮群文化事業公司, 1989, p. 192.  
178) 周一謀 主編 : 馬王堆醫學考注, 榮群文化事業公司, 1989, p. 196.  
179) 周一謀 主編 : 馬王堆醫學考注, 榮群文化事業公司, 1989, p. 196.  
180) 周一謀 主編 : 馬王堆醫學考注, 榮群文化事業公司, 1989, p. 193.  
181) 周一謀 主編 : 馬王堆醫學考注, 榮群文化事業公司, 1989, p. 193.  
182) 周一謀 主編 : 馬王堆醫學考注, 榮群文化事業公司, 1989, p. 194.

183) 周一謀 主編 : 馬王堆醫學考注, 榮群文化事業公司, 1989, pp. 210~211.  
184) 周一謀 主編 : 馬王堆醫學考注, 榮群文化事業公司, 1989, p. 211.  
185) 周一謀 主編 : 馬王堆醫學考注, 榮群文化事業公司, 1989, p. 210.  
186) 周一謀 主編 : 馬王堆醫學考注, 榮群文化事業公司, 1989, p. 211.  
187) 周一謀 主編 : 馬王堆醫學考注, 榮群文化事業公司, 1989, p. 212.

日, 而入猪膏□□者一合其中, 因炊【三】沸, 以傅疥而炙之. 乾而復傅者□. 居二日乃浴, 疥已. ●令<sup>188)</sup>이라고 하여 熱熨와 洗浴을 함께 하는 處方을 제시하였으며, “煮桃葉, 三升乃, 以爲湯. 之溫內, 飲熱酒, 已, 卽入湯中, 有(又)飲熱酒其中, 雖久騷(瘙)【巳】.”<sup>189)</sup>라고 하여 桃葉湯에 洗浴하는 方을 제시하였다.

### (7) 麻風病

麻風病은 古代에 癩나 혹은 癩 및 大風病이라고도 칭하였던 것으로 『五十二病方』에 “冥(螟)病方”이라 기재된 것은 실제로 麻風病의 處方이라 볼 수 있으니 “冥(螟)者, 蟲所齧穿者□, 其所發無恒處, 或在鼻, 或在口旁, 或齒齦, 或在手指□□, 使人鼻扶(缺)指斷. 治之以鮮產魚, □而以鹽財和之, 以傅蟲所齧者□□□□□□之. 病已, 止. 嘗試, 毋禁. 【●】令.”<sup>190)</sup>라고 하여 麻風病을 治療하는 處方을 제시하였다.

癩에 대하여 『內經』에서는 風寒邪氣가 血脈에 侵入하여 氣凝血熱케 된 소치로 인식하였으니 『素問風論』에 “癩者, 有榮氣熱腑, 其氣不清, 故使其鼻柱壞而色敗, 皮膚潰瘍. 風寒客於脈而不去, 名曰癩風, 或名曰寒熱.”<sup>191)</sup>, 『素問脈要精微論』에 “脈風成爲癩”<sup>192)</sup>, 『素問長刺節論』에 “病大風, 骨節腫, 鬚眉墜, 名曰大風”<sup>193)</sup>라고 하여 그 病因,

病機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 (8) 凍瘡等

『五十二病方』에 “身疔”라는 제목으로 14條가 있다. “疔”는 全身의 瘡瘍을 말하는 바 14條中 9條는 一般瘡瘍이고 나머지 5條는 “涿(瘰)” 즉 凍瘡에 관하여 수록하였다.

『五十二病方』에 “踐而涿(瘰)者, 燔地穿而入足, 如食頃而已, 卽□葱封之, 若蒸(蒸)葱熨之.”<sup>194)</sup>, “涿(瘰) : 先以黍潘孰洒涿(瘰), 卽燔數年【陳】○, □其灰, 治□□□傅涿(瘰). 已傅灰, 灰盡潰□□□摹以捏去之. 已捏, 輒復傅灰, 捏如前. 【雖】久涿(瘰), 汁盡, 卽可瘳矣. 傅藥時禁□□□□嘗試. ●令.”<sup>195)</sup>라고 하여 凍瘡에 대한 治療方法을 수록하였다.

### (9) 漆瘡

『五十二病方』에 “瘡”라는 제목으로 모두 7條가 있는데 이들은 漆瘡에 대한 論治로 그 중 3條는 祝由方이며, 나머지 4條는 藥物療法이나 애석하게도 原文이 매우 심하게 훼손되었다. 漆瘡이란 漆에 접촉함으로써 인하여 야기되는 皮膚가 過敏하게 반응하는 一種의 疾病이다.

『五十二病方』에 “□□鼠□擊(腕), 飲其□一○(杯), 令人終身不○.”<sup>196)</sup>, “□□以木薪炊五斗米, 孰(熟), □之, 卽□□□□□□□□□□□□□□□□□□時取狼牙根.”<sup>197)</sup>이라고 하여 漆瘡 治療法에 대해 수록하였다.

188) 周一謀 主編 : 馬王堆醫學考注, 樂群文化事業公司, 1989, p. 213.  
189) 周一謀 主編 : 馬王堆醫學考注, 樂群文化事業公司, 1989, p. 213.  
190) 周一謀 主編 : 馬王堆醫學考注, 樂群文化事業公司, 1989, p. 112.  
191) 洪元植 : 精校黃帝內經,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 84.  
192) 洪元植 : 精校黃帝內經,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 38.  
193) 洪元植 : 精校黃帝內經,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 105.

194) 周一謀 主編 : 馬王堆醫學考注, 樂群文化事業公司, 1989, p. 218.  
195) 周一謀 主編 : 馬王堆醫學考注, 樂群文化事業公司, 1989, p. 217.  
196) 周一謀 主編 : 馬王堆醫學考注, 樂群文化事業公司, 1989, p. 205.  
197) 周一謀 主編 : 馬王堆醫學考注, 樂群文化事業公司, 1989, p. 206.

### (10) 蛇傷 및 狂犬咬傷

#### ① 蛇傷

『五十二病方』에는 “蛇齧方”으로 1條가 있으며, “蛇”이라는 제목으로 12條가 있는데 이 條文은 毒蛇咬傷을 治療하는 것이다. 그 중 3條는 祝由方이며, 9條는 藥物療法을 논한 것이다.

『五十二病方』에서 “蛇齧 : 以桑汁塗(塗)之.”<sup>198)</sup>이라고 하였으니 이는 명확하게 蛇咬傷을 治療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 桑汁을 外塗한다 하였다.

“蛇 : 齧(齧)蘭, 以酒沃, 飲其汁, 以宰(宰)封其瘡, 數更之, 以熏(熏).”<sup>199)</sup>이라고 하였으니 “蛇”이란 蝮蛇類의 毒蛇를 가리키는 것이며, 本方은 毒蛇咬傷을 治療하는 것이다. 또한 “以董一陽筑(築)封之, 卽燔鹿覺, 以弱(溺)飲之.”<sup>200)</sup>, “煮鹿肉若野(野)肉, 食【之】. 齧(齧)汁. ●精.”<sup>201)</sup>, “燔狸皮, 治灰, 入酒中, 飲之. 多可醫(也), 不傷人. 煮羊肉, 以汁【之】.”<sup>202)</sup>, “取井中泥, 以還(環)封其傷, 已.”<sup>203)</sup>라고 하여 蛇傷에 대한 內服方과 外傳方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 ② 犬齧 및 狂犬咬傷

『五十二病方』에는 “犬筮(噬)人傷者” 3條와 “狂犬齧人” 3條가 있어 狂犬咬傷의 治療와 犬咬傷

의 治療를 구분하였다.

#### ㉠ 犬咬傷

『五十二病方』에 “犬筮(噬)人傷者 : 取丘(蚯)引(蚓)矢二升, 以井上齧(齧)處土與等, 并熬之, 而以美【醢】□□□□之, 稍煨, 以熨其傷, 犬毛盡, 傳傷而已.”<sup>204)</sup>라고 하여 熱熨法과 外傳法을 제시하였고, “犬所齧, 令母痛及易瘳方, 令【齧】者臥, 而令人以酒財沃其傷. 已沃而□越之. 嘗試. 毋禁.”<sup>205)</sup>이라고 하여 犬咬傷을 治療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 ㉡ 狂犬咬傷

『五十二病方』에 “狂犬齧人 : 取恒石兩, 以相靡(磨)醫(也), 取其靡(磨)如糜(糜)者, 以傳犬所齧者, 已矣.”<sup>206)</sup>라고 하여 外傳方을 언급하였고, “狂【犬】齧人者, 孰澡(操)湮汲, 注(注)【杯】中, 小(少)多如再食(漿). 取竈末灰三指最(撮)□□水中, 以飲病者. 已飲, 令孰奮兩手如□□間手□道□□□□□□□□狂犬齧者□□□莫傳.”<sup>207)</sup>, “狂犬傷人, 治畧與莫莫, 【醢】半(杯), 飲之, 女子同藥. 如(如).”<sup>208)</sup>라고 하여 內服方을 언급하였다.

## III. 結論

先秦時代 醫學의 病因, 病機學에 대한 研究의 一環으로 馬王堆醫書에 나타난 病因, 病機學說 및

198) 周一謀 主編 : 馬王堆醫學考注, 樂群文化事業公司, 1989, p. 198.  
 199) 周一謀 主編 : 馬王堆醫學考注, 樂群文化事業公司, 1989, p. 92.  
 200) 周一謀 主編 : 馬王堆醫學考注, 樂群文化事業公司, 1989, p. 94.  
 201) 周一謀 主編 : 馬王堆醫學考注, 樂群文化事業公司, 1989, pp. 97~98.  
 202) 周一謀 主編 : 馬王堆醫學考注, 樂群文化事業公司, 1989, p. 98.  
 203) 周一謀 主編 : 馬王堆醫學考注, 樂群文化事業公司, 1989, p. 98.

204) 周一謀 主編 : 馬王堆醫學考注, 樂群文化事業公司, 1989, p. 79.  
 205) 周一謀 主編 : 馬王堆醫學考注, 樂群文化事業公司, 1989, p. 80.  
 206) 周一謀 主編 : 馬王堆醫學考注, 樂群文化事業公司, 1989, p. 77.  
 207) 周一謀 主編 : 馬王堆醫學考注, 樂群文化事業公司, 1989, pp. 77~78.  
 208) 周一謀 主編 : 馬王堆醫學考注, 樂群文化事業公司, 1989, p. 78.

病證을 綜合, 整理하였던 結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馬王堆醫書에서는 病因에 대한 具體的인 言及은 없었으나 病因으로서 外感風邪가 言及되었다.
2. 經脈病證으로 足泰陽脈, 足少陽脈, 足陽明脈, 足少陰脈, 足泰陰脈, 足厥陰脈의 足部 六條脈과 臂泰陰脈, 臂少陰脈, 臂泰陽脈, 臂少陽脈, 臂陽明脈의 臂部 五條脈의 主病候를 敘述하였다.
3. 經脈病機로 十一脈에 대한 是動病과 所生病을 논하였으니 是動病은 經脈의 脈動失常으로 인한 該當經脈에서 나타나는 病證을, 所生病은 經脈의 脈搏動은 正常이나 該當經脈에서 나타나는 病證을 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4. 病證은 癲狂, 癰과 같은 內科와 外傷, 破傷風, 痔瘻, 癰疽, 癰疽, 燒傷, 疥癬, 麻風, 凍瘡, 漆瘡 및 蛇傷, 狂犬咬傷 등과 같은 外科分野로 區分할 수 있으며, 이들 疾患에 대한 治療法을 상세히 說明하고 있었다.
5. 治療法으로는 內服, 外敷, 薰蒸, 包紮, 熱熨, 洗浴 및 手術療法 등이 活用되었으며, 美容方도 수록되었다.

學史, 1997.

2. 洪元植 編 : 精校黃帝內經,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3. 凌輝星 主編 : 難經校注, 서울, 一中社, 1992.
4. 王洪圖 外編 : 黃帝內經研究大成, 北京, 北京出版社, 1997.
5. 張吉, 聶惠民 編 : 內經病證辨析, 沈陽, 遼寧科學技術出版社, 1988.
6. 周一謀 外 : 馬王堆醫學文化, 年度未詳.
7. 周一謀 主編 : 馬王堆醫書考注, 樂群文化事業公司, 1989.

#### IV. 參考文獻

1.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醫史學教室 : 中國醫